

A: 어디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안 했죠. 그랬다가 이래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자식들이 알았죠.

● 채육진 (야외, 봉선화꽃 배경. 맑은 날씨. 가끔 소울음 소리 들림. 카메라 조금씩 움직임)

Q. 선생님 그 성함이랑 연세 좀..

A. 나 채육진이요, 채육진이고 나이는 칠십 서이

Q. 사건 당시에는 몇 살이셨어요?

A. 학교는 저 왜정 때..

Q. 아니 사건 당시에 몇 살이셨어요?

A. 스물 한 살.

Q. 선생님 저보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A. 응 스물한 살

Q. 아까 왜정 때 얘기하시려고...

A. 응 왜정 때 학교 땡겼지.

Q. 아, 소학교?

A. 소학교 4학년

Q.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A.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 지방은 인제 여 출생지입니다.

Q. 자라시기는 어디서?

A. 여기서 자라났고.

Q. 계속 여기 사신 거예요?

A. 내리 여서 살고 저기 한참 그 때 우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먹고사는 게 제일 문제거든.

그래 저기 함평 ** 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한 5년간 그러니까 열 다섯에 가서 스물 한 살에 들어왔으니까. 그해 들어왔던 해에 우리 사변만났단 말이요. 거기 가서 인제 꼬봉(?)살이했지. 남의 집 사는 게지. 남의 일해 주고 인제 저거 받아 먹는 거. 그리고 그 해 들어가지고 난리 인제 여기서 만났죠.

Q. 난리라는 게 사건? 6.25 사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A. 육이오 전

Q. 전에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A. 응, 육이오 전에

Q. 오디오 확인

Q.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은?

A. 농업이죠. 여서 농사짓고 여서 여 저 뭐 () 밭때기고 여서 농사짓고

Q. 결혼은 하셨나요?

A. 네. 결혼은 했어요.

Q. 언제쯤?

A. 결혼은 스물네살에

Q. 자체분은 어떻게 되세요?

A. 아들 너이고 딸 둘이고

Q. 다 출가를 하셨어요?

A. 아직도 서른 네 살 먹은 머스매가 하나 있고요. 끄트머리 인제 서른 한 살 먹은 머스매가 하나 있고 그래요.

Q. 두 분만 인제 보내면...

A. 아, 그 두 건만 보내면 걱정 없겠는데 만날 고민이에요.

Q. 당시엔 가족이 몇 분이 계셨어요?

A. 당시에 모 여서이요. 그러니까 아버님, 형수, ... 야 그 모두 적혀 있잖아요. 여 동생, 그 저남동생, 형.

Q. 형이 몇 분이세요?

A. 형이 두 분인데 두 분인데 하나는 그 맏형은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돼 가지고 저.. 영창 갔었잖아요. 영창 가고 없었죠. 그 전에 갔고. 그래 인제 질녀하고. 질녀하고 질녀 둘하고 조카 한 조카 둘하고 막하 여기에서 아홉이 죽었어요.

Q. 열 세분이셨는데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셨던 분이

A. 살아있던 저게 조카하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너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어깨 부상 맞아가지고 살이 다 파여 가지고 피가 철철 흘렀는데 점촌 재생병원에서 한 5개월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그래 팔십 한 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몇 개 안돼죠.

Q. 선생님 그 때 나이가 스물 한 살이라고 그러셨죠?

A. 예

Q. 사건 당일 날..?

A. 당일 날, 사건 당일날은 사건 당일날은 아정 먹고 있다니까 저 반장이 여 유족회 회장 형이래요. 반장이. 나하고 육촌 간인 그 형님이 저녁에 저 문경학교 문경학교 그저 기성회비라고 걸었는데 나락을 걸었는데 그거를 **에 준다고 도로 가져 갔다 먹으라고 그런다고 넘어가자고. 그래 인제 그 때 당시에 일곱이 넘어갔지요. 마을 청년들이. 나하고 제당숙하고 여럿이 일곱이 넘어가서 그래 석봉을 넘어가서 그거를 인제 달아서 주는 걸 주는 걸 그걸 지계에다 징가 놓고 짚어지고 넘어와야 돼요. 지계에다가. 지계로 징가 놓고 이제 보니까 마을에 쥐똥 같은 연기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 거 석봉 사람들이 저 동네 불났다고 저저 석달 불났다고 빨리 넘어가보라고 그래요. 그 놈을 짚어지고 내비두고 얼른 와도 그런데 짚어지고, 먹고 살겠다고 그거를 짚어지고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니까 여 **에 오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산에 불을 지르고 산에서 불을 지르고 우리가 넘어오니까 거 놓고 손들라고 그러드만요. 몸 수색을 다 하드니 이 놈들 죽으러 가라 그래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적에는 그 사람들이 내뻐라 소리를, 피해란 소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죽으러 가라고 그래요. 그런 걸 육촌 형님이 유족회 회장 형이 죽어도 우리 같이 가 죽고 말아야, 넘어가자고, 그래 일곱이 다 넘어왔어요. 저길 넘어오니까 저 저위 저 뒤에 그 사람 묻었던 뒤에 바우가 쪽 내밀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다섯인지 한 대여섯 군인들이 섰더구만요. 서서 손들라고 그래요. 저 너머에서 수색했다고 그 형이 그러니까, 여기 섰으라고. 그래 놀다보니까 눈에다가 사람을 막하 모아놓고 총을 쏘는데 총 소리가 탱탱하는 게 말이야, 큰 소리도 안 나고 탱탱하면서 아이구 막 넘어지는데 넘어가는데 꼭 뭐 폭격(?) 쓰러지듯해요. 그래더니 얼마 있다 이 사람들이 올라오드니만 뭐라 그런게로 어디 갔다오느냐고 물어요. 저 너머에 이장한테 그 댐 호장(?)이라 해요, 면장한테 불 일 있어 갔다온다 그랬더니 그래 인제 반장이 반장이 '아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을 () 죽이는 게 낫지, 어떻게 이런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뭐 말이라, 말이 많해.' 그러더니 개머리쪽으료요, 한 차례씩 때리는데 나도 여기 여(맞은 곳 뒤통수 부분 만지며) 맞아가지고 정신 없지요, 뭐. 가운데 내가 가운데 섰었거든. 거의 일렬로 이래 세워 났는데 가운데 섰었거든. 그래 한 차례씩 때렸는데 고만 난 정신 없이 고만 요길 맞아가지고 정신 없이 먼저 엎어졌어요. 그래 칠촌숙이 키가 컸어요. 로차쿠라, 일본말로 로차쿠라 그랬어요. 여자를 가지고 로차쿠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죽어서 내 우에 업히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살았던 말ियो.

그래 살아서 밤에 어느때가 됐는데 어직어직 정신이 돌아오는데 뚫고 나오니까 그냥 휘젓고 기어서 나오니까 나머지 식구들 뭐 다 죽고 뭐 산 사람이 몇 안 살았어요.

그래 인제 **에 김용식이 그 어른이 왔다가 거기 왔다가 이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난 **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 영감님 뭐 젊은 사람이 여 모하러 왔어 밀고 떠울리고 쳐 백히고 막 그래요. 그래 나와 옷이 고만 피투성이더구만, 고만. 그 전엔 그 때는 바지저고리 입었었어요. 피투성인데 벌벌 떨려서 사람이 벌벌 떨려가지고 동지 선달인데 안 그래요? 그래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여길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하며 기어서, 그래 그걸 댕난다고 이불을 내놓은 걸 숨을 막 잡아땡겨 가지고 끼가지고 덮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아버지는 창자가 고만 다 나와가지고 '물 뒤 물 뒤' 말씀만 히사고. 그래 못 보겠어요, 참말로. 생각하면 참 그래 보니까 식구들은 조카고 동생이고 다 죽고 그 목격을 난 못 보겠어요. 그래 어머니를 업고 그거는 인제 벌집가루를 인제, 그 때 벌을 많이 했었거든요. 업고 벌집 가루를 막 가운데를 파 가지고 그걸 가운데 갖다 모 해놓고 이불을 안 탄 걸 갖다가 이래 모셔놓고 그래 있다니까 우리 숙모가 여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 어

른은 뜨신 물은 다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거서 있다니까 무슨 저 소리가 나는 거 같어요. 동생이 쫓아오더구만요. 동생이 여기를 맞았는데 죽었어요. 동생이. 동생은 저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래 동생이 쫓아오며 () 그래 올라 이렇게 그래 아 우는 소리 난다고 시체 속에서 아 우는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가 보니까 조카가 말예요 형수 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놈을 업고 올라와가지고 벌집간에다 () 물을 뜨신 물을 먹여가지고 그래 인제 그 밤을 거서 새웠어요.

그래 거 서 새웠는데 새우고 아침에 뭐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보니까 아버지 아버지도 목숨이 한물 갔지, ...

그래 인제 거 있다니까 경찰들이 오대요. 경찰들이 와 가지고 어머니 부상당하는데 호박을 붙이주고 그러대요. 호박을 붙이주며 호박이 좋다고 그러며. 그래 있다가 *산에요 김용학 우리 누님이 거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듣고 말이야 누이하고 매형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동생을 내가 업고 조카 업고 어머니 업고 그래 서이서 업고 *산으로 갔잖아요. 그래 넘어가서 그 이튿날 넘어가가지고 저게 누님들 집에 있는데 그 이튿날 시신을 묻는다고 말이야 석봉 사람이 도움을 해서 묻는다고 말이야 시신을 모두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석봉에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김상봉이라고 김상봉이라고 그 양반이 우리 식구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파가지고 () 했잖아요. 묻고 묻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만 봉분을 지어가지고 좀 해놓고 형수하고 그렇게 미혼아들은 그냥 묻어놓고 그래 동네 사람들을 그 사람이 와서 다 묻었죠. 그래 묻고 그래 뭐 그거도 그냥 개 때문에 개 때문에 그것도 못 미덥더라구요. 그래 묻고 돌아갔는데 묻고 거산으로 갔는데 개 때문에 그렇게 못 미덥더라구요.

매일로 왔어요. 여기를 매일로 와서 어둡도록 내 혼자 까마구는 각각 짓는데 그래도 짐승한테 신체라도 안줄려고 매일로 와서 캄캄한 다음에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개가 그 시체를 파가지고 묻고 땡기고 그랬었어요. (손으로 눈물 닦으심) 아유, 이 얘기만 하면 나는 피가 녹아요, 피가 녹아. 그래가지고 넘어가 그래 넘어가가지고 참 어머니를 점촌 재생병원에다 재생병원 하나 뿐이래요. 사촌은 저 점촌 도립병원으로 갔었지요. 그것도 석봉 사람이 석봉 어느 분이 참 좋은 일하는 ***이라고 그 어른이 사촌을 업고 점촌 도립병원으로 참 갖다 입원을 시키고 어머니를 내가 업고 그래 차를 타고 여 저 그 아래까지 나와가지고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그래 그 때는 뭐 돈이 있는가요, 뭐가 있는가요. 그래 집에 가서 집에 소를 한 마리 뛰댕기는 걸 집의 소를 묻고 갔었어요. 묻고 가서 그걸 짐을 저가지고 양쪽에 장작을 등걸을 해가지고 그걸 싣고 칫새벽에 점촌을 걸어 가면 칫새벽에 나서서 걸어가면 점촌 가면 10시 돼대요. 그래 그걸 피워가지고 온돌방을 병원안에서 그때 그걸 피워가지고 불을 대드리고 그래 집에 돌아오면 밤 9시 10시 돼대요. 그래 동지 선달을 선달을 한 달 그러니까 정월 한 달을 그

래 넘겼어요. 아이구 이 애길 다 할라든 한이 없어요, 내 고생을.

Q.

A. 사건 전예요? 내가요?

Q. 아니요, 아버님

A. 아버님은 논일했지요.

Q.

A. 나 사건 나던 해 들어왔지요.

Q.

A. 야, 그리고 소식도 없어요.

Q.

A. 내가요? 같이 살았죠. 그때 여기서 같이 살았어요.

Q. 형님도 거산에?

A. 안 살았지요. 형님은 여 있다가 보도연맹으로 인해 가지고 붙들려갔었고

Q.

A. 야, 여가 아니고 저 위에 살다가 붙들려 간 뒤에 내가 들어왔지요.

Q. 아, 형님은 거산에 같이 안 사시고 여기 석달...

A. 같이 안 살았어요. 야, 여기 석달. 사변 전에, 사변 나던 전에 붙들려 가셨고

Q.

A. 형님 잡혀가신 때가 47년 46년도가 될 건데요. 46년도가 되고

Q. 해방되고 바로 다음인가요?

A. 해방은 언제 된 데, 45년? 47년에 그래...

Q. 들으신 얘기는? 형님이 붙잡혀 가신 거 들으신 거죠? 직접 보신 건 아니고

A. 그럼 모 이 사람들 보도연맹이라고 집에서 밥해주고 보도연맹이라고 그래 가 입했다고 그래 붙들려갔다고 그래요.

Q. 그 애긴 언제 들으셨어요?

A. 그 때 그 당시에 들었지요.

Q.

A. 모르지요. 나는 모르지.

우리 어머니도 무식이래요. 학교를 댕겼는가 모

Q. 형님이 잡혀가신 건 어느 분한테?

A. 여 동네 사람한테 동네 사람한테 들어, 들어 알았어요.

Q. 그래서 형님 여기 사시다가 47년도에 보도연맹에 부역해서 붙잡혀 가시고...

A. 여여 같이 살았어요.

Q. 거산에 살다가

A. 거산 사는 거는 여기 사변 나고, 거산으로 내가 갔었고 여기 살았어요.

A. 여 난리 당하고 산 사람 몇이 거산에 갔었지요.

거산 누님들 집으로 그리 가서 살라고 그리 갔었지요.

Q.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그 때 처음 만났던 군인은 몇 명?

A.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모 내 보기는 사방 같이 있는데 한 대여섯 되는 것 같아요. 5-6명 되는 것 같아요.

Q. 혹시 말투나...?

A. 다른 건 없어요.

Q. 어디 살았는지?

A. 우리 한국군이래요. MR총이니까 모.

그래 나도 처음 총이라고는 처음 봤는데 내 군대에 가 갔다가 가서 아니게 MR 총이지. 군인들도 그 때 처음 봤고 내가 군대 직접 가니께 저 MR 총이라고 알고 군인인 줄 알재

Q. 그 전에 군인이 지나간다거나?

A. 그건 없는데

Q. 군인들이 어디 말씨? 사투리?

A. 사투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 들어도 모 거 잘 모르겠어요. 어디 말인지

Q. 넘어갔더니 아까 그 바위 있는데 군인들을 만났었고...

A. 예, 저 ()에서 지고 오다가 만났으니께

Q. 넘어왔을 때는 몇 명쯤?

A. 거기 넘어왔을 때는 한 대여섯 되요. 다섯이나 5-6명 될 것 같아요.

Q. 논 아래쪽에는 군인들이 많던가요?

A. 건 모 없는 것 같던데. 거긴 모 양쪽으로 사방 산으로 덮여 싸고 그런데.

Q. 논 있는데는 군인들이 없었다구요?

A. 거긴 없어요. 거긴 없어. 총 쏘는 데는 없었다고, 그 때. 총 쏘는 데 그 위에서 팡팡 그러는데.

Q. 팡팡하는 소리는 들으셨어요?

A. 예, 그래 총소리도 크게 나지도 안하고 모 오래 썩서 그런동 팡팡거려요.

Q. 아까 그 칠촌형님 시체 밑에서 ... 살아나셨다고..

A. 칠촌숙, 칠촌아저씨

(아이, 끼어들고, 비키라고...)

Q. 그 때 현장이 지금도 생생하세요?

A. 생생하구 말죠. 그걸 잊을 수가 있는가요?

Q. 그 때 어머니는 살아계셨다고?

A.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Q.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시기를 군인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A. 어머니도 건 모 모르는 모양이던데. 밤중에 모이라고 그래서 내려오신 모양이던데

Q. 군인들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A. 아 그 기간엔 모르겠어요. 들어 알기는 산에 사는 사람 밥해줬다고 밥해주고 말이야. 보도연맹으로 가입한 사람은 저 미리 있다고 하매 저 붙들려 갔었잖아요 그때는 조용했었어요. 밥해줬다고 원인이 그렇다고 아직 오지고 하니께 그랬다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서도 듣기로 그래요.

Q. 사건 나고 바로 그러던가요? 아니면 나중에 맞춰보니까...

A. 아유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Q.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가족 중에 아까 아홉분이라고?

A. 예, 거 명단에 다 있죠.

Q. 동생은 몇 살이었어요?

A. 누가? 죽은 사람? 다 기억도 못해요. 난 기억도 못해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요.

Q. 동생이 몇 명?

A. 동생이 여동생하고, 동생은. 형이 하나 죽고 남동생 하나고. 기억도 다 못하겠어요. 질녀하고 모 조카고.

Q. 해방 당시 기억하세요? 그 때가 4년 전이니까 열 일곱살?

A. 그 때 기억나는 거는 저 왜 마초 베가지고 베가지고 공출하는 거. 공출하고 저 풀을 베가지고 산에 가서 풀을 베가지고 새파랗게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저 전쟁할 때 말 먹인다고 마초에 베가지고 점촌까지 풀 실어다 준, 마초 말 먹이는 거, 왜정 때 전쟁하면서 말 먹인다고 말이야. 이것은 산에 가서 새파란 풀을 뜯어가지고 콩다리 말려 가지고 그걸 공출했잖아. 지금 말하자면 무조건 말이야 일본 놈들이 다 안한 게 없잖아요. 솟가지 소나무 가지 솔뽕치 따가지고 갖다 공출하고 () 벗겨가지고 공출하고 기억이 생생해요.

Q. 맏형이 그 때 해방됐을 때 몇 살?

A. 맏형이, 큰 형이? 친형이 나하고 11년 차이니까 서른 둘?

Q.

A. 아, 열 일곱 살. 11년 차이

Q. 그 때 여기 같이 계셨나요? 형님도?

A. 아 형님도 여기 같이 있었어요.

Q. 형님은 모하셨어요?

A. 그 때 논일 했어요. 농사지었어요.

Q. 형님은 왜 보도연맹에 가입?

A. 아유 뭐 알고 가입하는가요. 국문도 모르는데 모 거 피임에 넘어가서 그렇지.

Q. 누구 피임에?

A. 모르죠. 뭐. 누구 피임인지 모 그건 몰라요.

Q. 형님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A. 그건 알고 있었죠. 그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간 뒤에 알고 있었죠. 야, 그 전엔 그 전엔 몰랐죠. 돌아가고 난 뒤에 맨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Q. 보도연맹원이냐 그런, 월북하신 분.. 사변 전에...

A. 그 쪽엔 그쪽엔 몰라요. 이 동네 그런 일 없어요.

Q. 해방 직후부터 사건 겪기 전까지 기억나는 일?

A. 그냥 뭐 저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 송* 벗겨먹고 아버님하고 저기 가서 톱 가지고 가서 나무 베어서 소나무 베어 가지고 **해 가지고 송* 벗긴 거 송* 벗겨다가 그저 꺼풀 벗기고 꺼풀 벗겨다가 물에 삶아 집에서 그저 삶아가지고 그걸로 죽 끓여먹고 그런 일이 있고 () 그때는. 그게 기억나요.

Q. 일제시대에는 소학교 다니셨다구요?

A. 야.

Q. 형님들은?

A. 아무 것도 안 땡겼어요. 그리고 동생은 () 학교 땡기다가 학살 다 당하고

Q. ** 초등학교?

A. ** 초등학교

Q. 일제시대 소학교를 다니시고 더?

A. 더 갈 수 없어 가지고 지금만치 무슨 돈 없지 모. 그 때 () 아니래요. 지금은 모 여 둘째가라면 서러울 낀데

Q. 어려웠지만 식구들이 많아서...

A. 분위기는 그때는 굶어도 좋았지요.

Q. 아버님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A. 아버님?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거는 늘 밭 매고 밭 매고 그 땡별에 나가셔서 밭 매고 먹고 산다고 먹고 살릴라고 밭 매고 그 땡을 흘려가며 하는 뭐 생생하지요. 오뉴월에도 말이야 땡별에 나가 가지고 땡을 흘려가며 조밭매고 하는 그게 생생해요.

Q. 사전 전날이나 그 날 아침에

A. 없어요. 가족들하고 모 () 그런 줄도 몰르고 그런 일이 날 생각도 못하고 아정 먹고 바로 반장이 불러가지고

Q.

A. 형편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갈 형편이 안돼요.

Q. 그 부대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

A. 부대들? 군인들? 기억에 남는 건 모 모르겠어요. 없어요. 기억되진 않았네.

그 저 군인이라도 하나 때려잡았으면 무슨 총이라도 뺏어가지고 때려잡았으면 판결이 나는데 그카는 사람도 있고. 거 많은 걸 모 할 수 있는가?

Q.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

A. 내 생각이요? 생각은 모 말할 수 없죠. 생각은 모 같이 안 죽은 게 같이 죽어서 이것도 저것도 고만 모르고 고만 세상, 뭐 세상이 귀찮대요.

Q. 그런 일이 없었으면?

A. 그런 일 없었으면 잘 살았지요. 동무가 많아 가지고 잘 살고 잘 지내죠.

Q. 누가 제일?

A. 우리 형수, 우리 형수, 아버님. 우리 형수, 아버님. 뭐 형도 보고 싶고. 뭐 우리 다 우리 화목하게 지냈어요.

Q. 형수님이 잘해 주셨나요?

A. 네 잘해주고 말고요. 시동생이라고 하면 나라고 하면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 형수가 참 미녀예요. 여 **면에서 석봉 이장이 **라는 분이 이장했었는데 여 **면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Q. 살아난 조카가 몇 살?

A. 몰라요. 잘 모르겠네요.

Q. 한 네 다섯 살?

A. 그렇게 될 거예요.

Q. 누가 키웠나요?

A. 내가 키우다가 키우다가 홍역을 했거든요. 거산서 이 집도 내가 내 손으로 거산서 여기 십리 되는데 십리 되는데 흠뻑 해가지고 지었어요. 지은 집이에요. 내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 길으로 이렇게 흠집인데 저게 뭐 발라서 새로 개조를 해가지고 저렇지 흠집으로 지었어요. 야 처음에는 거산서 넘어댕기며 내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 하꼬를 이래 해가지고 여 와서 흠을 벗겨가지고 여기 이 땅이 내 터인데 우리 밭인데 여기 지으라고 하더구만. 그래 내 손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조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살 먹었는데 네 살 먹었는데 홍역을 해가지고 야, 홍역. 홍역을 해 가지고 그래 뒤에 여기 저 홍문이 어른, 홍문이 채홍문이 말이요. 그 어른이 여 가도 한 다음에 거 하고 와가지고 부정이 들어가지고 그래 더해가지고 그 때는 병원이 있는가요 약이 있는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고만 조카를 잃었어요. 네 살 먹은 걸 잃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오십너인데

Q. 사건 나고 거산으로 가셨다구요?

A. 아니, 여기서 사건 나고 거산으로 갔었어요. 바로. 바로 사건 12월 29일. 12월 24일 여서 만나고 25일날 거산으로 갔었잖어요.

Q. 현장에서 재 넘어오면서 군인들 봤을 때 죽일 거라고 생각?

A. 아뇨, 그런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 생각을. 사람 죽이리라곤 생각을 못했지.

Q. 군인들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

A. 무슨 이런 일이 있는고 싶은 게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모두 넘어왔었죠.

Q. 코는 그 때 다치신 거?

A. (상처 만지면서) 여가요? 그 때 개못자리에 확 했는데 앞에 그 때 앞에 돌아 있어서 가지고

Q. 군인들 사람 모아놓고 어리니까 빠져라 하는 소리는?

A. 못 들어봤어요.

Q. 현장에서 깨어나서 무슨 생각?

A.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난 우에 살았는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말이야. 병병하대요. 마음이. 마음이 병병하고 뭐 아무 생각도 안나대요. 식구들 다 잃은 것도 있고 내 생각은

Q. 큰 형님은 돌아오셨나요?

A. 아니예요. 저기에 진주에 형무소 어디 대구로 해 돌아오지도 안하고 6.25때 바른 길로 오자고 그러면 모 종적도 없지요.

Q. 제사는 지내세요?

A. 네 제사는 지내요. 내가 제사는 지내야지. 우리 형수 형수 거 뭐 우리 말이 형수 우리 형 앞으로 올렸어요. 장손이니께

Q. 기일을 모르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A. 모르지요, 뭐. 그러니까 나가신 날로 하죠.

Q. 총 전쟁에서 열 분을...?

A. 열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카시대요. 나가는 날이라도 제사를 지내라. 나가신 날로

Q. 형님 제사 지낸 지는 몇 년이나?

A. 형님 제사를 지낸 지는 뭐, 돌아가시고는 곧 지내는데요.

Q.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건?

A. 육이오 나고 난 뒤에 뭐 보도연맹들 다 죽었다고 그런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 때 뭐 종적도 모르지요.

Q. 군인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A. 아, 그 일은 몰라요. 몰라요. 벼락 벼락은 우리가 뭐 날벼락 맞는 거죠.

Q. 신성모 국방장관이 찾아왔다면서요?

A. 야, 거산학교로 찾아왔어요. ** 초등학교.

Q. 거기 가셨었나요?

A. 난 그 때 참석 못했죠. 여기 보느라고. 여기 신체 보관하는데 하느라고.

Q. 당시 시체 보관하던 데가 중석굴?

A. 아니래요, 저 위에 다 묻은 거래요. 그거 보느라고. 개가 만날 돌아댕기고. 이야기만 들었죠.

Q. 뭐라고 그랬다고?

A. 몰라요. 다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부르대요, 경찰에서. 뭐 금테 두른 사람인데 차가 한 차 한 여나쁜차 돼요. 차가. 여나쁜 차 되는데 저 밑에

- **라고 그러는데 헛집이 있어요. 그 박**네 집이라고 거기로 날 불러가지고 그 당시 얘기 좀 해 달라고 경찰이 말이야 금테 두르고 뭐 높은 사람 많이 왔어요. 그래 옛을 사취가며 말이야 바른대로 얘기해보라고 그래 옛먹어가며 얘기 좀 하라고 뭐 같으나 그래요. 군인이더라고 군복입고 군인 있더라구 그러냐고 거서 () 경찰이 와서
- Q.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 A. 경찰 서에서 왔는지 대구서 왔는지 몰라요. 없어요. 아는 건 없어요.
- Q. 데리러 온 사람은?
- A. 데릴러 온 사람은 몰라요.
- Q. 어느 경찰서로?
- A. 아니 경찰서로 간 게 아니고, 저 이복 이복 집으로 불러서 거기서 경찰들 뭐 북석북석한 게 많아요. 한 20명 될 거 같아요. 시커먼 지프차 쪽 서 있고
- Q. 신성모 장관 다녀간 다음에?
- A. 다음에 한 삼사일 지났을 거예요.
- Q. 그리고는?
- A. 그리곤 아주 중 무소식이지요.
- Q.
- A. 딱 얘기는 안하대요. 묻는 것도 없고 뭐. 뭐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대요. 군인 있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암 말도 안하대요. 뭐 어떻드냐 안 물어보고
- A. 국회의원이 여 와서 조사해 갔는데 둘이 와서 조사해 갔어 사일구 전에 사일구 전에 해가고 사일구 일어났잖어. 야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대요.
- Q. 전쟁 끝나고?
- A. 우리 사변 나고 우리 난리 만난 뒤에 뒤에 와서 저기
- Q.
- A. 육이오 사변 전에 육이오 사변 전이고 우리 난리 만난 후에 신장관 돌아간 뒤에 국회의원 둘이 왔다고.
- Q. 국회의원들은 뭘 알아갔나요?
- A. 몰라요. 난 뭐 인터뷰를 안하고 나하곤 뭐 안하고 **씨하고 몇이 얘길 하더라구
- Q. 다음날 초원사진관인가에서 현장확인 사진?
- A. 찍었어요, 찍긴 찍어가지고 갔어, 찍는 건 봤는데 내가. 찍어가지고 갔어요.
- Q. 사진관 주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 A. 몰르죠. 뭐. 그 때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못해봤고
- Q. 언제쯤?
- A. 그러니까 그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사람들이 죽고 그 이튿날 25일날 12월

25일날. 야, 아침에 아침에 왔어요.

Q.

A. 그건 난 담장도 안해봤고 멀리서 봤지요.

Q. 4.19 일어난 것은?

A. 알았죠. 당시에 알았죠. 몰라요. 다 잊어서 모르겠어요. 금방 들은 것도 잊어 버리는데

Q.

A. 나하곤 못 만났어요. **씨하고 몇이 만났어요.

Q.

A. 아니 우리가 딸 둘, 아들이 너이.

Q. 자제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A. 아들 내가 얘기 안 하면 모 모르죠.

Q. 언제쯤 처음 얘기?

A. 한 오 년 됐을 거네요. 내가 얘기한 게

Q. 왜 그동안 얘기 안하셨어요?

A. 그동안은 뭐 저들도 마음도 상할끼고 들어봐야 뭐 굳이 좋은 게 모 있어요. 얘기도 안했어요.

Q. 제사 한꺼번에?

A. 한꺼번에 지내지

Q. 궁금해하지 않던가요?

A. 왜 안 궁금해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는 왜 다른 덴 다 괜찮은데 우리는 왜 많이... 나도 모르겠다.

Q.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A. 누구 아들이요? 참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뭐 그런 비감이 아들도 비감이

Q.

A. 위령탑도 세워줘야 되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Q. 돌아가신 분들은 뭐를 바라실까요?

A. 돌아가신 분들은 뭐 위령탑 안 세워드려야겠어요. (허공 바라보며) 영혼들이 아직도 저 뭐 구천을 헤매고 있을 거래요. 절에 절에 가서 항상 절에 작은 스님한테 가서 불공을 드리고 () 돌아가셨지만 좋은데로 보내달라고

Q. 꿈에서?

A. 꿈에 나타나요 아버지님 어머니님, 식구가 많이 나타나요.

Q.

A. 뭐 생시같지요, 뭐 그전 살던 생시같지요. 그래 인제 생시같고 밭매고 아버지님

발매고 말이야 점심 갖다 드리는 거 그런 생시같아요.

Q. 꿈 속에 가족들 나타나면 웃고 계세요?

A. 꿈에서 봤을 때 생시 같지 뭐 만날 웃을 때 웃고. 꿈에 안보는 게 좋다는데 꿈을 꾸고 나면 **해요.

Q. 5.16 일어났을 때 피해?

A. 피해는 없어요. 농사만 지었으니까.

Q. 유족회 활동?

A. 예, 해야죠. 하고 있잖아요, 서울 올라갈 일 있을 때 같이 올라가야 되고 모 여기서 모일 때는 같이 모여야 되고.

Q. 언제부터?

A. 우리가 한... 몰라요. 한 몇 년 될진데요. 한 칠 년인가 팔 년인가 안 됐겠어요? 잘 기억은 안 되도...

Q. 도움이 되세요?

A. 아직도 저기 해결이 나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뭐 돈도 없는데 뭐 만날 돈 상납금, 경우에 따라서 상납금 뺏을라고 그러지. 차비도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도움이 될 게 뭐 있어. 해결이 되어 되겠지.

Q. 사건 관련 부대 얘기..?

A. 알아본 적 있지요. 저기 그 뭐 그 때 누가 얘기 들으니까 저 속촌가 뭐 그쪽으로 갔다왔대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 때 뭐 당첨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 육이오 참 우리 난리 때 참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갔다왔다고 본인이 못 만나 보고 그냥 허양 왔었잖아요.

Q.

A. 속초 그 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삼사해 지났을진데. 삼년 전?

Q. 방송팀하고?

A. 아니요. 여기 점촌 조카, 우리 유족들 몇이 차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Q.

A. 못 만나고 왔지요. 그 사람도 암으로 죽은 뒤여서

(계속 모르겠다는 대답)

눈이 무더가지고 금방 봐도 그 사람 인사를 해야,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

Q.

A.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뭐 우리는 우리 여 위령탑 세워주고 여 뭐 피해보상 피해보상이나 당연히 좀 해줘야지. 원은 그것 밖에 없어요. 뭐 저 우리 부모 단장도 새로 다 해야되고 돌아가신 단장도 다 해야 되고 사람 노릇을 하자면 다 부모에 대해서 ()

안 그래요?

Q. 잠 못 이루시고 맘이 아파서...?

A. 속이 아파 가지고 약을 약을 내가 병원에 가서, 한 병원에 가서가 아니라 한 의사한테 진찰을 해가지고 한 두 재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신경성으로.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한 때 먹은 일이 있어요.

Q. 약 드신 게 언제쯤?

A. 약 먹은 지가 그 때 하여간 저 사변 나고 한 삼 년 있다가 그런 병이 났었어요.

Q. 다른 건?

A. 다른 건 허리가 아파.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Q.

A. 몰라요 그건 그 일 때문에 그런지 난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자꾸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도 잘 못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농사짓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Q. 형님도

A. 둘째 형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어. 둘째 형님 동생도 그랬고

Q.

A. 내가 다 하죠, 내 손으로 아버님 염을 해 가지고 지계에 저다가 저 풍수를 데려 가지고 풍수를 데려 가지고 지계에 저다가 저 **를 사 가지고...

(암전)

Q.

A. 아이고 우리 아도 ...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둘째가 지금 저 서울 간호대학교(?) 총무과장. 둘째가.

Q.

A. 간 똑똑하지요. 서울대학교 있을 적, 간판이라고는 지가 다..., 서울대학교에도 과장으로 있다가 인제 간호대학교 총무과장... 말이는 **. 말이는 인제 마흔 일곱 이니까 손자가 올해 동국대 갔고

Q. 손자가 대학교에 갔어요? 그럼 손주 나이가 그 당시 할아버님 나이...?

A. 맞아요. 맞아. 손주한테 이 얘기도 안해. (왜요?) 아유 이 얘기 하면 뭘해요.

Q.

A. 그래 둘째하고 말이고 책도 책도 말아 내가지고 국회도 갔다가 저 국회의원들 만나

돌리고 모 책도 수차례 냈었잖아.

Q.

A.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모두 알아서 다 모아놓고 인제 명절 때만, 휴가 때 다 모아놓고

명절 때만 죽 오면 집이 () 소작해가 한 20명 오면 조카들하고 한 20명 오면 집이 소작해가지고 그래 아가 둘째가 내년 봄이라도 이걸 아래채를 뜯고 방을 크게 한 두 칸을 해 가지고 그래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 여 내 손으로

이걸 한 거니까 내 손으로 한 거니까 영 뜯기가. 뜯어가지고 더 잘 짓는다고 그 래도 난 반갑질 않아 사실. 내 손으로 하도 고생을 해서. 저저 거산초등학교 있 는데서 넘어 땀기며 이걸 내 손으로 흠뻑해 가지고 지었거든. 하도 고생을 해가 지고 그래 여여는 ()를 보상하고 아래채나 아들 저 산 밀어가지고마 크게 유원지같이끔 크게 하나 짓자고 그러는데 아 그건 안한다고, 그냥 뒤라... 그 포도 자세요. 시장하잖아. 포도 자세요.

Q. 나중에 해결이 된 후에 나중에 아버님 만나게 되면...?

A. 내가 죽어서? 죽어서 돌아가면 이 해결 다 하면 잘했다고 칭찬할킨데 아버님. 인제 이것도 잘했다고 칭찬할끼야. 그 원을 풀게 해야지. 나는 나는 모 다른 건 다 그 모 위령탑이 없어가지고 내내 제사라도 잘 지내드려야 되죠. 신이 없다고 생각 못하잖아요. 귀신 신 자가 생길 적에는 맹 저 그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 겠지.

13. 경산

1. 학살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

일 시 : 1950년 7월-8월

장 소 : 경산 페코발트 광산



2. 당시 상황과 가해자

경산에서의 민간인학살은 페코발트 광산의 학살사건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페코발트 광산의 학살사건은 단순히 경산지역 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인근의 모든 보도연맹사건과 대구 형무소 재소자 처형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피학살자 현황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북인근의 보도연맹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4. 학살 유형

5. 사례 및 증언

● 김태천(부친 : 김수도(84))

· 짚단 3단주고 보도연맹 가입.
청도읍 덕암지 못 무등에서(50.6.15) 경산으로 잡혀옴 → (6.17) 어머니 면회 왔으나 못 만났다. 눈에 모아놓고 몽둥이질을 했다.

● 이용선(오빠 : 이용수(21세))

유족 나이 당시 19세. 형제(1남3녀) 중 중간 딸
· 집은 경산압광에 있었지만 유족은 대구 직장에 다니고있었다.
전쟁 직후 집에오니 마을 전체가 CIC가 총을 들고 장화같은 신을 신고 온 동네에 사람을 잡으로 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이미 사간이 난 후였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잘 모르시던 상황에서 오빠가 보도연맹에 도장하나 찍어준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큰 언니가 있는 부산에 가라'고 했는데, 오빠는 '죄진 것도 없는데 갈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CIC가 3일정도 동네에 들락날락 하는 동안에 잡혀갔다고 했다. 어머니가 지서에 면회를 갔다왔다 하곤 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오빠가 불들려갔다, 동네에 청년들이 다 불들려갔다고 했다. 국군들 후퇴하고 인민군이 영천까지 쳐들어왔을 때 동네에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미군이 아가씨를 잡아간다는 말이 들려서 동네에 다니기도 겁이 났다. 오빠는 그 후로 죽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소식을 못 들었다.

직장에 다시 나가기 위해 대구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죽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굉장히 아낀 아들이었던 오빠는 죽어서 어머니 가슴에 묻혔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면서, 아들 이름을 불렀다.

'남편은 땅에,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자신도 아들을 잃고 보니 엄마 생각이 절실해 졌다.

● 양영희(68)(누이동생 : 양영호(당시 23세)-신리본동 94-227호, 878-9478)

· 철도기관국 공작계 근무 중 상사 권유로(우선 대접해준다)로 보도연맹 가입, 1배급 주고 특별대우. 시민회관 광장에서 트럭에 태워져 사라졌다.전쟁 발발 1주일 후 잡혀가 3~4일 후 면회. 광산굴에 갔다는 소식을 들음.

● 박상운(아버지)

당시 자신은 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통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쟁직후 경찰에 아버지를 끌고갔고 이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골짜기에서 사는 동안 전쟁전에 빨치산에게 밥을 해줬다는 것이 이유였다.

● 정시중(부친 : 정차섭. 협석리 445-4번지)

· 일제말기에 일본군에 징용갔다가 해방되면서 돌아오셨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는데 49년 1월경 경찰서에서 와서 잡아가셨음(이유는 모르겠음, 당시는 마을사람들 모아놓고) 열심히 살라고 도장찍고 풀려났다.

다시 농사를 짓고 49년 9월경 저녁식사후 협석리 193번지(집)에서, 옆의 큰아버지택에 청마루에서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대문앞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서 '손들어, 꼼짝마'하는 소리가 난 이후 큰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나와보고 아버지는 끌려가셨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당시 유족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셨다.

● 홍 손 연(66세)(오빠 : 홍 화 식(26세) - 수성구 신매동 584-3번지)

당시 유족은 15세 정도 오빠는 25~26세 정도.

· 오빠는 한마을(압광면 신대동) 사람이 도장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장하나 찍어준 것 때문에 불들려 갔다. 장가가고 석달만에 전쟁이 났던 그해 음력 8월 순경이 와서 불들려 갔다. 그 먼저 불들려 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오빠를 불렀다. 오빠는 자다깨서 쫓아나와 '어떻게 풀려 나왔느냐'며 반가워하는데 그 사람 뒤에 있던 순경이 바로 오빠 손목에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갔다. 아마 순경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오빠를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오빠는 부적(사진관, 당시 파출소)에 있다가 경산(담배청 위치로 추정)으로 옮겨졌는데 며칠 어머니와 올케가 밥을 해다 날랐다. 앞서 불들려 간 사람들이 풀려 나온 사람도 있어서 죄도 없이 불들려 간 오빠도 곧 풀려날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밥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울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순경이)밥을 안 받는다. 이제 오지 말라하더라'했다. 그때가 인민군이 영천까지 내려왔을 때이다. 오빠의 처가가 삼풍동에 있었는데, 그때 그곳 사람들이 '사람들 눈을 가려서 차로 몇 번씩이나 나르더라', '굴로 데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오빠도 그렇게 죽은 것 같다.

● 전 장 윤(50세)(부친: 전경희(31세)- 용성면 용산리 372번지)

· 당시 아버지는 마을이장. 전쟁 바로 전 겨울에 경찰에 의해 끌려가심.
고향이 골짜기이다 보니 밤에는 빨치산들이 와서 반장인 아버지를 찾고,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아버지를 찾았다.

전쟁이 나기 바로 전 겨울, 경찰이 아버지를 끌고 갔고 아버지는 대구형무소에서 재판도 없이 미결수로 있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7월 30일(음력 6월 16일) 광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쯤 할아버지가 면회를 갔는데, 교도관이 '이제 면회오지 말라', '인근지역에 처형 갔다'라는 말을 듣고 오셨다.

당시 어머니는 26세, 내 나이가 7살, 동생들이 5살, 3살이었다.

자라면서 살기가 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연좌제가 겹쳐서 나는 전방에서 군

무하고 월남에도 다녀와야 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는 1964년에 마을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정확히 안 것은 최근이다.

1960년6~7월 발행된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끌려가 죽은 사람 명단 1402명중에 아버지의 성함도 있었다.

● 김태순(74세)김기호(유족동생)(남편 : 천태암(76세) - 용성면 매남3리)

김태순 유족은 22살, 남편 24-5살.

남편은 동네에서 인민단 단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좌익활동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청년들이면 다 인민단에 들어가 한다고 해서 들었고 단장을 하게 되었다. 전쟁전 겨울에 경찰이 와서 '빨치산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잡아갔다. 신고를 할 수가 없는게 신고를 하면 빨치산이 와서 죽이는데 어떻게 신고하겠는가. 그렇게 잡혀간 남편은 용성지서로 갔다가 경산경찰서로 옮겨졌다. 용성지서에는 나도 잡혀갔는데 아는 대로 다 말했다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해도 무조건 모른다 했다. 그래서 나는 풀려났지만 남편은 경산경찰서로 옮겨졌다. 아마 고문을 못 이겨서 아는 대로 말해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12월 17일(음력) 경산경찰서에 간혀 있다가 같이 잡혀간 사람 셋이 묶여서 총살을 당했다. 같이 묶은 두 사람은 죽었지만 남편은 오른팔에 총알을 맞아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을 쳤다. 마침 친정집으로 도망을 쳐서 친정 골방에다 꼭꼭 숨겨두었다. 그러다 3월(음력)에 집안에 법을 잘 아는 분의 권유로 남편이 자수를 하게 했다. 그때 자수를 안 했으면 살았을 거다. (보도연맹에 자수한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집에서 지내다가 5월(음력, 전쟁이 터진 직후)에 있다가 어느 날 경찰이 그런 사람들을 '경찰서로 오라'고 다 모았다. 남편은 나가면서 딸아이에게 '내 곧 다녀오마, 고구마 사오마'했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40대까지는 하루도 잊지 못하고 가슴이 메이면서 살았다.

● 정용호(형님: 정용우, 정삼우-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5번지)

압량 강제에서 살았는데(지금도 아들·며느리가 살고있음) 전쟁이 터지고 바로 두분 형님(정용우, 정삼우)은 보도연맹 관련으로 끌려가신 이후로 소식을 못들었다. 어디로 끌려가신지도 모른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좋은 것인줄 알고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경찰이 끌고 갔지만 당시 경찰은 CIC에 예속되어 있었다. (전쟁 중 비상계엄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의 모든 권한은 민사처장, 헌병대상, CIC 대장으로 3권화되어 있었음) 아마 전쟁직후 전선이 밀려 내려오면서 마포형무소(주로 사상자가 수감되어 있었음)의 수감자들이 풀려나 남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건으로 보도연맹을 무조건 다(죄와는 상관없이) 잡아가게 되었던 것 같다.

형님들은 붙들려 가고 나이가 어려서(당시 17세) 나는 청방(대한청년방위대?)

에 들어갔다 나중에 군에 갔다. 코발트광산 근처에 2층 건물에 청방 사무실이 있었고, 건물 구석에 파견나온 CIC 사무실이 있었다.

유치장에도 자리가 없어서 건물지하에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 가득 가둬두고 보초를 세웠다. 지하라 창문도 없고 문도 나무문뿐이었는데, 화장실도 안에 드럼통을 갖다 놓고 있었고, 사람들 땀냄새도 많이 나서 문을 열면 악취가 진동을 했다. 때로는 CIC감시를 피해 밤 12시 쯤에 담배를 넣어주곤 했다. 보초를 서거나 훈련받다보면 하루보통 10차도 더 넘게 사람들을 신고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총소리가 들렸다. 한번 신고하면 총소리가 약 40분정도 계속 들렸다. 그것이 약 한달 동안 계속 되었다. 비가올 때는 사람들을 트럭에 죽 엮어서 앉혀놓고 고개만 들면 개머리판으로 때렸고 비가와도 사람들을 신고 갔다.

코발트광산 큰굴에서 다 못죽이니까 옛날 굴뚝(코발트 녹이는 데)에서도 사람들을 죽였다. 시체를 묻으러 갔다온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너무 참혹하게 많이죽었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나마 군에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굉장히 시달렸다. 특히 코발트광산 지서에서 빨치산 습격을 받고 순사 한 명이 죽은 후로 더욱 그랬다. 평산 9개동이 평산지서 하나에 속했는데, 그 동네사람들은 참 많이 시달려야 했다.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낮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빨치산으로부터, 경찰들로부터. 도시보다 오히려 시골이 더했다. (그때 순경 유순경(후쟁이)가 지금 조사과에 있음)

내가 듣기로는 여기서사람들 충청도로 가고 다른데 사람들이 코발트광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용성지서 주임(박만수)이 사람들을 많이 풀어주어서 민심을 많이 얻어서 2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 제보자 : 박태순 할머니 (74세) / 피학살자 오영대(30세)

" 그때 제국시대는 전부 아가씨 뭐 다 꼬집에 가가지고 밥 갖다 날라준다 카더간 그런거 한다 케가 전부 나어리가지고 전부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만 16이고 지금 나이로 치면 17살 때 시집을 왔어요. 우리 영감되는 사람은 21살인데 고때는 21살되만 모두 군대를 가요. 그래서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결혼하고 3년만에 군대를 갔는데 21살 때 갔는데, 3년을 있다가 제대해가 나왔어요. 일본군을 제대해가 나왔어요. (해방이 되서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글 몬배왔다고 접장이 한분 계셨는데 인지라도 글 배워야 된다케가***** 서당에 한문을 배운다고 나가더라고예, 그때는 접장한테 배웠다. 이 양반이 하도 양심이 곱고 이레가 말이 남자지 여자 한가지라. 그래가 남이 한찰 때리면 맞고 있지, 때리는 일 없고, 그래가 그런 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안했지. 마 글 배우러 가는갑다 있었디마는... 지덕으로 미칠 만나가니까네 종종 친구들이 부르러 와여.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불르러 와여. 그래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갑다 싶었던만. 그래

가 저녁에 놀고들어오고 그래여. 그래도 전혀 그런일 하는줄은 몰랐지. 그래가 있는데...이자 6.25사변 터져가 뭐뭐 이카고 있는데 이자 사람들이 모지가 오는기 눈치가 이상하더라고. ***** 그래가 한날 밤에는 이자 애기를 들고 모깃불을 마 당에 놓고 덕시기를 띄놓고 알라를 들고 잠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가 자뻗는데... 그런데 일어나보이 시누가 언니야 자뻗서 몰랐나 클났다 카다라고 와 이카이 어떤 사람이 불러내는데 오빠가 나가디마는 오빠가 마 붙잡히 가뿌따 이케여. 그래서 사람이 이거 진짜 이상하다. 뭐 죄진일 없는데 뭐땀에 부잡히가노. 설마 오겠지 이카고 있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하루가고 이틀가도 소식이 없더라고예. 그때는 이자 마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예. 그래서 이사람 저사람 한테 물어보고 그라이..(경산유족회 사무국장님을 가르키며) 이사람 아버지 하고, 우리 집에하고, 화식이 아버지 하고 서이가 붙잡히 갔뿌따 카더라고예. 왜 붙들리 갔느냐 물으이 그래 거 소문에 이 지역에 도요다라카는 사람이 오얀데 그때 말로 빨갱이 오얀데 와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만 이자 고생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도장만 찍어도라고 뒤쳐 리는 내가 한다 하여튼 마 도장만 찍어주마 여 가입만 하마 편안하기 니것 내것 없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기 있다카미 경산에 도요다라카는 사람이 우리 마실에 누굴 시키가 도장을 전부 받아갔다. 그래 했는데 이 양반이 참 어리숙게도 그래 뭐 도장을 뭐 그카이까네 편하게 일안하고 살 수 있다 이카이께네 무슨 영문 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가 명단에 이름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카이 마 도장을 찍어 뉘뿌리따 캡디더. 찍어 줬다. 직접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카데. 그래가 찍어줬는데...넌중에 이야기를 들으이 그카데. 그래가 마 우야졌네 같이 죽지도 모하고 찾으라 케도 찾도 모하겠고. ***** 어디있노카이 경산 경찰서에 있다 캡디다. 그래 *** 가보이 면회도 안시키주고 보지도 모하겠더 만.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경산에 가이까네 (광산이 있는)평산지서로 끌리갔다 캡디다. 그래 평산지서로 끌리갔다 케가지고 시살 못는 아를 들고, 아바리아도 그래도 이 아를 한번 뷔주자 이래가 안 보고 싶겠나 카메 내가 들고 밥을 뵈뵈에 사가 평산지서로 가보이 마 나가뻗다 캡디더. 밥을 안 받아줘요. 안받아 줬는데 그질로 가가 광산에 가가 찍있는 모양이라. ***** 그래가 그 밥을 참 울민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해가고 잇해 가고하이 누구는 돈 열매씨가 나오고 누구는 돈 열매씨가 나왔단다 이캡디더. 우리는 아이고 큰죄도 없는데 설마 나오겠지 뭐 오래있겠나 카면서 기다렸는기 결국에 죽고 안나옴디더. 그래가지고 마 오늘날까지 살아왔는기라예. 그며 살아왔는과정은 말할 수도 없고, *****보상 그거 얼마되야 보상이 되겠어여. ****솔직한 말로 남들은 빨갱이가 죽었다 이 카는데 참 그 소리 듣는기 그렇게 귀가 아픍디다. ****자식들한테도 너거 아바이 그래가 죽었다 소리 평생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거가 한 살 두 살 묵고 학교가고 하이 저것도 남한테 듣는 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친구한테 아무꺼 시 아바이가 빨갱이해갔고 죽었다 뭐 어떻단다 카이 얼마나 자숙이 골뱅이 들

졌어요. 그래가 저거는 내 마음 아플까봐 아버지 우째가 죽었는기 이야기 안하고, 나는 저거 마음 아플까 싶어까봐 이야기 안하고..***** 나이들고 이라이 이자 아 그때 그래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저거도(자식들도) 죽어도 한이 맺히기 있고, 내가 죽어도 한이 맺히기 있다 이말임더. 뭐 죽어도 이기 한이 맺히기 있십더. 그래가 이자 우리 아들도 종교로 보내는 것이 혜나 저거가 크면 말이죠 너거 아버지 빨갱이 해가 죽었다단다 뭐다 카면서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이 *****아이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 뭐하노 카면서 무슨 일이나 저지르면 우야노. 이기 참 걱정이라예, 그래가 아(이) 들한테 야들아 너거 마 교회가라. 교회가든 참 우리가 복 받고 참 좋다. 예수를 믿으면 참 복받고 *****그래가 지금 우리 아들은 장로가 되어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으니까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불러라고 그래가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카면서 불렀지 가들은 아버지 우예 생겼는지 하나도 몰라예". (마을은 압량면 신대리)

● 제보자 : 손재모씨

저는 형제간이다 보이 언제 나갔는기 대충알고 평산지서에 가가 고문당했다는거 조금 알고 저는 잘 몰라여.*****별로 참 내가 참 형제이다 보이게 이 아지매처럼 직접 그거그트마 몰라도 형제일이다 보이 기억 나는 것도 없고, 고때 나갔는 날짜, 듣기기로 지서에 끌리갔다 또 코발트 광산 지서에 있다가 거서 이자 고문당하고, 내 생각 것으면 다 명단 올리줘가지고 죄책이 같다고 생각되는데 뭐 우예된 일인지 간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거 있는 사람은 있고, 결국엔 거 안나온 사람 보이게 *****얼매 안있다가 코발트 광산 굴안에 들어가 총살시키고 뭐 밑에 **** 코발트 광산이 지하로 마이 내리간다 카데요****거 가이고 밀어여뿌고 총살시키고 인자 그런말을 그 당시에 들어다카이. (할머니) 그때 거예 돈 좀 썼는 사람은 전부 나오고, 그라고 거 순경이 쪼매라도 아는 사람은 다 나오고 그랬어예. (사무국장님) 보통 사람들은 죄를 안지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라고 니기적니기적 그러다가 일을 당해버린 경우다. 결과적으로 돈없는 사람은 죽고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노력해서 나온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도요다는 뭐 돈씨가 안죽었다 그라고, *****(일은 그 사람이 다 시켜서 했는데) 거는 안죽고 살아있다 카데. 형제는 모두 3형제인데 말형이 돌아가셨다. 성함은 손성모씨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이유를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마카 여 아주무이도 이야기하다 시피 보도연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불리가지고 죽었을.....명단만 올렸는지 도장을 내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붙들리가가 마 죽었다. *****우리 마실에는 이렇게 불리나간 사람이 모두 3사람인데 모두 객지나가버리고 지금은 살지 않아여.*** (마을은 경산시 압량면 당

음리)

● 제보자 : 경산유족회 사무국장 이정우씨

저는 8살 때 6.25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때가 사변이 일어난 한 여름 7월 말이나 8월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들 부친이 군인2명으로부터 포승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코발트 광산 부근에 있는 지서로 끌려가서, 한 15일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모친이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면회도 하고, 또 우리는 그때 가난했지만 큰집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돈 좀 가지고 와서 빼내가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구해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부친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CIC 당시는 특무대라고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마을에서는 5명이 끌려가서 5명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골은 현재 코발트 광산 굴 안에 묻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장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군속으로 취직을 한적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취직을 1년정도 해있다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원조회를 하니 까, 신원조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부역 및 행불 이레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비밀취급인가를 못얻었습니다. 못얻고 업무를 군에서 한3년동안 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올 무렵에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보수가 좋은 쪽으로**** 몰래 처형해놓고 행불로 위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 제보자 : 경산유족회 회장 유운암씨

저는 저의 둘째 형님입니다. 그머 사건개요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라면 굉장히 시간이 들고, 우리는 농사 좀 많이 가지고 머슴도 세 사람이나 데리고 살고 그랬거든요 참봉집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동네가 그때 기와집이 3채 밖에 없었어요 전부 초가집이고...

(그때 사시는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경북 용성면 쟁광동.. 그런데 그때 동네호수는 60호 정도 되었는데, 매년 초가집이 요새는 그런기 없지만 짚을 메워야 되는데 매년 짚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이 좀 크고 하다보이 집이 우채 4칸 아래채 3칸 또 따로 사랑방에 1칸 해가 우리집에서 짚을 엮을라 그라만 사닥다리가 필요하여 사닥다리가 굉장히 컸어여.

높을데를 올라갈라카만..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저거는 다 초가집이니까 이집에 가져가고 저집에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 사닥다리가 어데에 있는지 동네에 물어봐야 되여. 소유는 우리인데도....이집이 필요하면 이집이 가져가고 저집이 필요하면 저집이 가져가고....나중에 우리집이 필요하면 물어서 찾아야 되었어요. 그때 용성지서에 들어가는 경비전화를 논으로 질러가지고 저쭈 경산서까지 해가 경비 전화가 요새 거트면 큰 전주가 아이고 쪼그만 전주 간이전준데(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경비전화선을 누가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현장에 우리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그리 경찰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이 이거이 누구끼냐 아무게 까다. 그래가 잡아간기라요. 이새끼 이거 누가 잘랐냐? 우린 모른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 평소에도 이건 우리집에 없다. 이래 말해도 막무내가여. 그래가 지서가가 뚜드려 맞는걸 한 다섯여섯 차례 되가 맞고, 나와가 또 메칠었다가 불리가가 맞고, 그래가 나는 현장에 사람이 불들리가가 뚜드려 맞는데도 겁이나가 아무도 안가이, 그래도 밥이라도 해가 가야될꺼 아이가 케가 내가 지서에 밥을 들고 갔어요. 내가 갔을때도 여러 사람이 와가 뚜드려 마가 지서 바닥에 완전히 실신되가 놓였고, 완전히 죽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집에 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력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나오라 그래요. 그 밑에 형님이 아이고 가지 마이소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가 마 그 추력타고 갔는데 그라고 부터는 거시기 마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 우리 세째 형님이 가지마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가 그길로 가가 우리 형수는 아들하나 있던거 죽어뿌고 형님도 그래가 행방불명 되어뿌고, 젊은 나이에 혼자 살수 있나 이혼해가 제가 해뿌리고....그 형님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 네째 형님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지금 제사 지내는 날은 그 나간 날이 7월 1일이에요.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날은 제사를 그날로 안하고 9월9일로 제사를 지내요 음력 9월9일로....음력으로 7월 1일날 나갔는데 그날 죽었는지 모르께네 그때 형님이 몇살 이었는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수소문은 하니까 전부 경산 여 있다 그래요. 그래가 밥은 해야 안되겠나 해서 밥을 해가 가니까 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받아주더라. 그래가 우리도 가보이 받아주겠나 그랬지예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돈만 좀 주만 빠져나온다. 우리는 그런데 죄도 없는데 돈을 줄 필요가 있겠나... 죄없으면 나오겠지..그랬지요.

(죄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죄명은 없고 니가 뺨쟁이 아니냐? 왜 경비전화 잘랐는데 니가 그 사닥다리를 빌려줬냐? 니가 준거 아이가?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유주가 우리니까 요새 말로 어려운말로 하면 니가 이적행위 한거 아이가. 그러이 뭐 그때는 때리는기 지금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그 상황을 안보면 상황과약을 못하니까

(지서에 갔을때 대량 몇명정도 잇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깐 대략 10명 정도는 있었어요.

(그때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은 없었나요)

우리 자형이 또 갔어요. 자형이 그때 말가지고 구루마 가지고 물건 실어다 나르고 대구에 나무도 갖다 팔고 했는데...단지 니가 처남 매부간 아이가 그래가 차말로 아무관계도 없는데 사닥다리 하고도 관계가 없는데도 끌리갔어요. 그때 자형도 매나 쟁광에 살고 있었다. 나는 이말을 입밖에도 안냈는데...

(유가족이 피해입은 것은 없었는가)

내가 군대갔을때는 내가 군번났는날이 59년도 9월 2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못살아가지고 군대도 도둑질 하는기 많았어요. 특히 쌀, 휘발유 도둑질 하는기 많았지. 그래서 졸병들 한테는 먹이기 없었어요. 그때 내가 수색중대 카는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대에서 물건을 사다가 먹고 하기 때문에 보급을 안받고, 거는 위험수당 카는것도 있고 그래서 밥이 먹고 싶어가 거 갈라고 신청을 했어요. 내가 먼저 수색중대에 간 하사한테 거 좀 갈랍니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넌 안돼 그래가 나중에 내가 몇때문에 그라는가 이야기나 좀 해주시오 알아봅시다 그랬죠. 그러이 너거 형님이 빨갱이라는데 그런데 가가 되겠다. 그러이 뭐 그 사람한테 사정해보이 되나, 또 한번은 서울시청에 시험을 치니까 어떤 때는 발령을 내가 신원조회를 하는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원조회를 해가 발령을 내는 때도 있는데, 서울 시청에 시험을 쳐놓고 신원조회를 해보이 심사하는 사람이 야 이거 형님이 빨갱이라도 애가 그때 국민학교 다녔는데 뭐 알아가지고 사상범을 했겠냐 그러이 옆에 있는 사람도 참말로 그렇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된거지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불려고 탄원서를 냈는데 관청에서는 알수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둘째 형님과 자형분은 현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공무원이어서 알지만 사람 죽이놓고 행정 서류 하나도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현재 둘째 형님과 자형은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폐코발트 광산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 박태순(대구) 할머니, 최위생, 안승규 인터뷰

인터뷰

박태순 할머니(대구)

학살장소: 경산 코발트 광산, 남편 사망, 아들 하나 있었으나 사망. 혼자 사심.

최위생 (아버지 최성두)

학살장소: 경산 코발트 광산, 아버지 사망

안승규(예천 유족회 부회장)

00:00 (최위생씨 웃는 소리)

박태순(BS): 사는 주소 가르쳐 주까?

대구 북구 노원 상가 857-1

거기 산다. 거기 박태순

(김희철: 박태순 할머니. 가족이?)

박: 내 혼자.

(김희철: 아드님은?)

박: 없어. 죽었다.

(김희철: 언제?)

박: 죽은 지 오래 된다.

(코발트 광산에는?)

박: 코발트 광산에는, 그 순경이 정순경이라고 있었는데, 술도 같이 먹고.

(최위생 옆에서 말장난: 코바르~트~트 광산)

박: 성이 한 성이거든.

(옆에서 하는 말장난에) 에이 씨.

01:00 그 사람이 '형님요.'하면서 이래 지냈거든. 지냈는데 우리 신랑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사형을 들어가는 기라. '형님요, 날 살려주소' 이카더란다, 거기서. 그때 순경이 거 가가 만난 거는, 사람을 많이 갖다 쳐 여니까 주위에 사람. 거 들어가는 사람 못 나 오라고 그 지켰지.

그 '형님요. 날 살려주소' 막 카더란다. '니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려주나' 그 살려 주면 그 사람이 죽는다. '니를 어떻게 살려주나' 이카며.

우리 동네 와가 그카더란다. '정순태는 코발트 광산에 가 죽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려 주면 죽는다. 그래 우에 살려주노?'

그래 인제 말을 했는데, 그거를 내 듣는데는 아무도 말 안해 주는 기라. 그래 오래 돼니 그 말이 퍼져 나오더라. 그래가 코발트 광산에 가서 죽을 줄 알았지.

그거는 분명코 맞아. 그 사람 말해 주는게 맞아. 거서는 단 데 안가고.

한번은, 이거 아까 번에 했는가 모르겠다.

한번에는 왔는데, 사람으로 쟁쟁 로프로 감아 갖고 와가 옷을 둘러카니 옷을 주니. 그때 죽이러 가는 기라. 옷 갈아 입혀 갖고 그 길로 가가 죽여버렸어. 다시는 안 오 드라. 안오더니 씨야시 부대가 씨야시 아저씨가 또 왔는 기라. 또 와가 우리집 형 편을 다 묻더라카이. 묻는 거를 전부 가르쳐주고 보내줬어.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는 기라. 죽여놓고 왔는 기라. 지금 생각하니.

(김희철: 씨야시 부대라 하면은?)

03:05 군대, 씨야시 부대. 아는 사람 다 안다.

디게. 군인. 무섭다, 그거는. 무서분 사람이다.

(김희철: 한국군인이요?)

박: 어, 한국군인이지. 씨야시라 카면 참말로 마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 가지고 거 뭐 또 잊어버렸다. 그래 갔는데, 또 조사를 나왔다. 학벌 묻고 우에 사는가 묻고 전부 묻고. 그럴 땐 한번 사람 죽여뿌리고 오는 기라. 가면은 사정을 해 살려달라고. 그때는 이미 틀렸어.

그래 '애기 잘 키우세이' 이렇카고 가더라. 그게 마지막 말 아니가, 그쟈? 그래 하고는 가고, 조사도 안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오고. 그때 내가 돈도 없고 차도 없고. 한번 갈라케도 돈이 없어가. 돈이 십원짜리 하나 없는기라.

(ZI, BS)

대구역에 한번 찾아보러 올라케도 못오고. 그래 가을에 차비를 장만해 가지고 왔다. 그래가 형무소에 가도 없고, 거 가도 없고 대구 다 댕기도 이름도 없는 기라. 살았으면 형무소에 가 안 있겠나, 그쟈? 가도 없고. 거 코바르트 광산에 내가 직접 눈을 안봐도 그 정순경이란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고 말해줘 갖고 그래 안다.

박태순(BS)

박: 그 모르고 그때 그기 금광이다. 금을 파보니까네, 금이 안나오는 기라.

금 파는 그 금광에 굴을 뚫어 놓은 게 그 얼마나 크노, 그쟈?

판데 갖다 물을 데도 없고 거 갖다 쳐 넣어 가지고 학살시켜 버렸다. 한테 꼭 갖다 넣어 가지고 뽕 둘러서 싸가 '빠 방뽕' 해갖고 그리 다 죽였다. 가보니까 광산에 굴 뚫어놨는데, 이래 들어가보니 아주 조용~하니 한적하더라.

뭐, 사람 데고 가가 죽여도 뭐 아무도 모르겠더라.

최위생: 청도가는 쪽이던교? 자인가는 쪽이던교? 경산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박: 청도도 안가고, 자인도 안가고 거서 시청 앞에서..

최위생: 지금 시청 앞에? 거기서 어디로 가던교?

박: 저쪽으로..

최위생: 아, 가창 쪽으로.

박: 거긴 대구라, 대군데 얼마 안갔어요.

최: 대구 가창굴 거긴가?

박: 옛날 금 파는 데가.

최위생: 아, 거기구나. 나는 경산 코바르트

박태순: 한번은 엄마도 갔다. 엄마도 아들이 뽕쟁이라고 얼마나 두드려 패고 전기고 문을 받아 가지고 쫄쫄쫄 쫄구 나오니까네, 아들 보여 주더란다. 아들이 '엄마, 나는 집에 인제 문가이까네,' 아 이름 동영이거든. '동영이 잘 키우세이.' 이르더라. 그런데, 그래가 나오는데, 또 뭐 조서 꾸민다고 오라케가고 갔거든. 가니까 씨야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쫄쫄하니 좋더라.' 이래 하는 기라. 그래 씨야시가 아무나 씨야시가 안되거든, 이게. 옛날에

그걸 뒤벼보면 찾을 수 있다카이, 그 사람들. 그래 하는 걸 들었다. 그래가 사는데 하이구, 그 고생 말도 못한대이. 이 손이 아파 가지고 인제 좀 많이 나셨다. 이게 얼마나 다 튀어 나오고, 이 다리라 카는 게.

(최위생: 아주메는 그러면 지금도 아가씨가 되어가 있겠네?)

최: 지금 사는 현장은 대구 동구 효모 1동 960-17번지. 그담에 이름은 최 위 생. 나이는 60. 그래서 우리 친정은 금촌면 어문, 그 당시에. 거기서 컸는데, 아버지가 내가 8살 땐가봐. 아버지가 갔다가 오면은 '내가 학교 여주꼬나' 그랬으니까 내가 7,8살 때라. 그럴 때가 모를 심고 들에 일을 해. 고 앞선에 내일이 교육이니까. 최 성 두, 우리 아버지는 최성두. 그래 내일 교육오너라 하는 통의를 받았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파출소일. 직원이 아니고 소사로 있고 면에도 면 소사로 있다가. 아버지가 엄청 똑똑해. 면 내에서 최성두라 카면 알아주는데 똑똑하니까 그런데 가 일했겠지. 공무원 생활 하는 데. 설탕도 노랑 설탕을 엄청 배급을 타고 오더라고. 그래 내가 애들하고 노뽕 먹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내일에 교육간다' 들에 한바쿠 빙 도는데, 내가 그 형체를 아는거라. 하얀 가다마이를 입고 출근을 하는가봐. '아이구, 이 바쁜데 웬 교육을. 어디로 갈라카노?' 할때 할아버지가 뭐라 하더라고. '그래도 오라카는 기라. 경찰서에서 오라카는지, 파출소에서 오라카는지.' 그때 지서라. 지서서 오라카니까 가야 된대. 그래 있다가 저녁인데, 엄마 아버지가 앉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여보 소리가 잘 없었어. '위생이 아버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느냐' 하면 '내가 늦까 오게 되면은 내가 편지 할꾸나' 그래 우에 오라 하면은 살도 한되 가지고, 손가락도 그걸 가지고 오라케. '편지하구나.'하면서 그때 연필이라. 연필 동갱이 요만한 거 하고 조런 종이를 접어가 넣으면서, '내가 늦까 오면 편지 할게' 그래 '나는 신도 다 떨어졌는데..'이카니 '신도 사오꺼나.'하더라고. 그래 그날 저녁에 그렇게 누워 자고 이야기 하고. 아침이 되가 가는데, 엄마를 보고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등더리 두드리면서 '잘 있거라. 나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면 편지 하구나' 하고. 요만한 무슨. 아버지 원래 일본 갔다가 똑똑하니까. 면에 그래 다닐 적에 그렇게 가방 같은게 있더라고. 거기 다 쌀 요만치 하고 손가락하고 가 가더라고.

그 뒤로 나간 뒤로는 소식이 없는 거라. 소식이 없어서 엄마는 한달 두달 기다리니까 얼마나 기다리노? 아버지가 올때는 편지도 한다카이 신도 사올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천날만날 댕기다가, 또 인자 어떤 사람이 막 데리고 갔는 기라. 우리 엄마를 나이도 스물 몇살인가 서른 몇살. 서른이 잘 안됐겠네. 데꼬가가 술로 맥예가지고. 인자보니까 막 그런 사람이었나봐. 군인들하고. 얼마나 두드려 패고 사람을 막. 막, 젊은 색시니까, 이래놔어. 그래, 엄마가 그 뒤로 화병이 나가 어디로 가쁜는데, 어째다 보이 죽었다케. 그 인자 엄마도 없고 난 할메하고 사는 거야. 살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런 말을 잘 안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못살아. 엄청 못 살았어. 일본 갔다가 나오니 뭐가 있나? 아

무 것도 없고. 할매, 할아버지 나이 많재. 그 인자 외가집으로 가니까 외할머니가..

(pan 박태순 할머니 누어서 듣고 있음)

13:05 최위생: 한 1년 2년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최서방은 경산 코바르트 광산에 가 가지고 자갈 나무 때려놓듯이 때려여가 그래 다 죽었다.' 그러카더라. 외할머니도. 자꾸 땀기면서 소식을 알거 아니가. 사위가 나와가지고 그러지, 엄마는 또 그랬다카지, 그 소리 자꾸 듣는 기라. 우리집에 와가 할매한테 그카고. 그리고 내가 열일곱에 결혼을 했어. 할매가 내가 못 사니까 돈많은 남자 있으니까 '시집 보내라' 해가 누가 중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쌀 몇가마 주고 날 데리고 갔는 기라. 가가 보니까 유부남이라. 애가 둘이 있는 남자라. 나이도 십몇년 차이라. 엄청 아저씨더라고. 머리로 허여허여이 시었고. 그래 인자 결혼을 하기 전에 세월이 조금 흘렀잖아요. 일년, 이년 삼년 가니까. 자꾸 할매는 알고 싶어가 물어보고 어태가 점도 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우리 동네서 아버지 나이의 친구가 시집을, 경산 자인 사이에 시집을 가가 사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천날만날 신고 땀기고 죽이고 살리고 폭탄 터지고 그래 하는데, 불펜하고 공책하고 연필하고 아버지 향시 가지고 땀기는데, 갈때 '편지할꼬나' 하고 준비를 해가 갔어. 그리고 이름은 눈감고도 씁니다. 지금도. 자기 이름, 그런 거는 눈 감고도 쓰거든. 그러니 그럴 때 금방 가가 금방 가 죽인 게 아니야. 한꺼번에 모았다 카니까. 오늘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모아왔다 하는 동안에 편지를 글로 탁 써갖고 종이를 착착 접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고 어느 동네 가면서, 차가 가면 문지가 여러 수십대 가니 문지가 개락이란다. 사람들을 신고 가는 걸 알았다. 알고 우리 친정에 우리 집에 오니까 '위생이 아버지가 그래 갔단다' 하는 소문이 안들립니까? 길가에 편지 쪼가리가 흘렀는데, '그래, 간다. 고때 고차로 간다카는 걸 남겨놔. '그렇게 간다'카는 걸 남겨놔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말을 못 전해주는 기라. 확실히 보도 안하고 '전해 주마.' 전해 주는 사람까지도 그거 할까 싶어가. 그때 세월이 참 사돈 팔촌까지도 저거 하는 세월이라 말도 못했는데, 우리말로 듣고 있는 거라. 소곤소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기라. 내가 일찍이 결혼해가 와가 또 인자 살렸지. 살피도 알 길이 없어. 고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가 살아있거든.

살아있는데, 그래 인제 결혼해가 나도 사는 게 고생스럽잖아요? 내가 잘 살면, 이 부모를 찾을 일도 없었을 거야. 아버지 죽고 내가 할머니하고 살며 어렸을 때 고생도 하고 시집이라 하니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인자 버려두고 내혼자 대구로 직장생활 하다가 고생고생 하는거죠, 그죠? 내 인제 직장생활 사십 몇살까지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60이니까 한 7,8년 전에 내가 고생스럽다가 보니 내가 부모를 찾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영세민 할라고 우리 본적에 가 저거 띠고 띠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보고 '아이, 최성두네' 하는 소리도 듣고. 인제 내 지혜를

'우리 아버지 너무 억울하게 죽었구나' 오빠가 있나, 누구가 있나 찾을 길이 없고. 내 혼자 지혜를. 억울한 거를 어디 가가 찾을 수 없나 싶어가, 청도 경찰서에도 갔다가 지서도 갔다가 다 가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정 알고 싶으면은 대구 변호 사무실에 가 물어봤다. 거 또 물어보니까. 그래 '어느 청에 갈까요?' 그러니 경상북도 도에 한번 가보라케. 그래도 오래 있었다고. 작년 제작년인가 찾아갔어, 도청에. 가니까 요런 조직을 하고 있더라고. 고릴 때 적어 놔는 거라. 적어놓고 요번에 인자이래 알고 왔어. 내가 잘 살았으면 부모도 안 찾았을 긴데, 나는 인자 다리도 아프지, 몸도 아프지. 너무 못살고 영세민으로 이래 살다가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 있었으면 날 방한칸을 얻어줘도, 돈, 천만원, 이천만원. 이천만원을 줘야 방을 한칸 얻는데, 얻어줄까요. 나는 부모없는 탓으로 이렇게 골방에서 '이렇게 살아야되나' 싶어 생각으로서 자꾸 부모타령을 하다보니 찾고 찾고 알고 알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까지 이 자리까지 왔어. 왔는데, 어떻게 쌀만 한포만 있으면 나는 부자 눈알로 보여. 미국을 주고 어태도 주고 쌀도 이렇게 흔더만은. 영세민으로 쌀 몇포 주면 안되나 싶고. 그 버리는 쌀. 이 북나라까지 주면서 왜 동네마다 불우이웃 돕기는 몬하는가 엄청 정부가 원망스럽드라고. 국회의원 찍어달라고 와서, 먼저 와서 한포만 부탁하자고 애원할 적은 언젠데, 찍어 줘노니까네 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많은 사람은 안 밝혀주고.

박: 이런 일을 안 밝혀 주고, 와 이렇게 고생을 시키노? 우리 죽을 때 다 됐는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른다. 국회에서는 이런걸 밝혀가지고 우리 좀 한을 풀어주고 좀 잘 한번 맥여봐라 해라. 살찌가 죽을란가 살란가. 간대이~ 아줌마 수고해라.

최위생: 그러니까 그게 참 원망스럽다카이께네. '국회에 한 장 찍어 주세요. 한포만 주세요' 대구시에 시장 '나, 한포만 찍어주세요.' 할 때는 언젠데, 이 못사는 영세민 몇 명되겠소? 그죠? 다 방한칸 얻어가, 천만원, 이천만원 얻어가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래 한다 싶은 게 너무 원망스럽고 진짜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란가 국회 의원이 우예될란가 모르는데, 정치를 바로 해 줬으면 좋겠고, 평등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이, 정치에, 높은 자리에. 어른. 대통령, 국회의원. 부탁입니다.

안: 조금 움직일려면 전부 다 돈인데. 저가 3년 동안 조사하면서요, 내 차가 그때 사고로 해서 면허도 취소되고 이카는 그때에 노근리 사건 나가지고. 차도 없이 노상 시골 택시 타고 다녀봐요. 시골길요, 택시 불러 가지고 타고 다니고. 솔직하니 수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내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께. 사먹어야지, 식사도 해야지. 그래 인제, 3년동안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지. 에피소드나 그때 마 순간적으로.. 그래 곳곳마다 전부 다 얘기 틀려. 죽는 사연이나. 집집마다 불들려 갈적에 상황이나.

(이태준; 거기도, 예천 거기서도?)

안승규: 그러이, 우리 뭐 예천 전부 다 돌아다녔으니까.

아까 얘기하다, 무이 그 옆에 원당고개서 한 칠십명이 죽었는데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조사를 해 보니까 무이, 용궁면. 무이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여기 와 죽었는데. 머슴들이 말이지 일해주러 왔는 사람들이 죽었는 기라. 거의 죽었는 거라. 연고가 나타날 수가 없지. 그까지 다 합쳐도 백 오륙십명 정도. 예천군 내 그래 보고 있습니다. 500명은 아니고, 내가 조사한 바로는 백 한 5,60명. 근데, 무연고가 상당히 많아요. 무연고가 많고. 그 머슴으로 있다 와서 죽은 무연고자 한 3,40명 안 되겠나. 그리고 현재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조사를 해도 '우리 집은 제발 조사하지 마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 한 사람은 대구에 파출소장 하고 있어. 거기는 얘기도 하지 마라 부러, 자기한테는. 자기 집에는 조사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어디 뭐 자기 말 안 한다고 조사 안되는가?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다 얘기하지. 내가 보니 내 나이 또래 됐는데, 지나 내나 그때 상황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모르는 상황 아니야. 자기 부친인데.

(예총: 인원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직접 조사하신 결과는 반수정도..)

MBC에는 500명으로 나왔는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다 합쳐봐야 백한 오십명이 약간 넘든가, 하튼 이백명을 안 넘는다 이기지. 안 밝혀도 그거는 조사하면 다 알아. 예를 들어서 한 동네 딱 들어갔다. 6.25때 보도연맹 관계나 학살된 사람 물으면 그 동네 숫자 딱 나와. 우리 동네 몇사람 죽었다. 딱 나오는 기라. 그게 어데 뭐뭐 죽었다 해갖고 죽었고, 그게 아니잖아. 실체가 다 규합해 보면, 예천군에는 몇명이 죽었다 하는 숫자가 딱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거 딱 조사해 보면은 내 판단하기로는, 500명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 없는 숫자다. 최대한 많아봐도 200명이 안 넘는다. 부풀린 점이 마마 부풀리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조사한 바로는 무연고로 머슴같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삼십명. 또 내가 못 밝혀낸 부분이 한 삼사십명. 그리고 내가 조사 되었는 기 한 칠십명. 그러면 이게 이게 백 한 오륙십명 정도 나와. 그 이상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난 봐. 왜? 내같이 지금 이래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조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말로만 '어데 얼마 죽었고..'하지.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한 사람은 내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인제 (조사한 자료들 넘겨 보면서) 조사하다 보면은 사연이 많은게 많애.

안: 쓰리쿼터에 짐차에 사람 싣고 가다가 산골짜기 으스스한 데 들어가다가 마 차를 딱 세워놓고 그대로 막 다 방면시켜 버린거야. 죽일러 가다가. 그 경관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희철: 왜 풀어줬을까요?)

안: '이건 잘못됐다' 얘기지. '이건 잘못됐다' 이거지. 이렇게 죽이면 이거 안된다

얘기지.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고 방면했습니다. 저 대구 공대위하고 조사하러 갈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여 와 있어 가지고 못 내려 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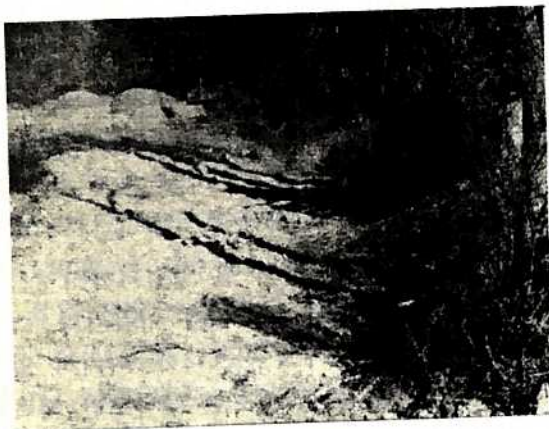
(김희철: 어디 사시는 지, 그 전화번호 다 아시고?)

고 아는 분이 이번에 참석했어요. 남상택씨라고 연세는 한 60이 넘었는데, 그분 잘 알아. 그분하고 같이 그때 그 당시 예천 경찰서장 했는 사람, 그 사람 집하고 또 이번에 방면했는 사람, 이 순경집하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같이 취재하기로 얘기 됐습니다.

(김희철: 예천 경찰서장이 지시를 한거예요, 학살을?)

안승규: 지시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경찰서장이 지시해서 될 일입니까? 지시 받았는지 안 만나봐서 모르죠. 그 당시 경찰서장이 지금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약속을 해냈는데, 내가 여 와서 이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이 진척이 착착 되고 말이지 내가 좀 하루 이틀 빠질 수 있으면 갔다오면 되는데, 여 일 자체가 이래카고 있으니까. 대구서도 내 내려오는 걸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시간봐서 내려가야지. 뭐 내려가서 그것도 하고. 우리 고향에 거기 전부다 대구 공대위에서 사건 현장 다 촬영하고 갔습니다. 우리 예천 유족회.. 참석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부랴부랴 여 서울로 여 참석을 해야 되니까.

14. 청도 보도연맹원



1. 학살 시기 및 장소

시 기 : 1950년 7월 중순 경
장 소 : 청도의 곰티재와 춘밭골 등지

2. 가해자

군·경찰

3. 피학살자유형

경북 인근의 보도연맹원 600여명

4. 피해사례

● 제보자 : 박희춘씨(청도 유족회 대표)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잡아갔다. 이때 순경들은 다른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감시 수단도 안붙이고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게 연행을 하였다. 이때 아버지는 보도연맹원이 아니었다. 그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서주임이 숲의 느티나무로 발생했던 감정으로 본서로 넘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는.....혼란한 시기에 큰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국책을 이해하여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사실로 '맥도 모르는' 친공, 용공자들과는 대립하고 설득하며 무사할 것만 바라던 분이셨다. 좌경인 친척 때문에 근심하시고, 짧은 밑천으로 교훈 하시다가 무식하다는 편견을 들으시고도 포기하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연행되어 간 다음 날 경찰서로 가보았다. 경찰서 정문에서 오른편 남쪽 오십 보 거리에 국민회당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곳에 사백여 명의 보도연맹원이 연금상태로 있었다.....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다음 날 담요를 가지고 가셨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오셨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서였다. 명산맥이 남편을 면회하러 갔을 때 국민회당은 텅비어 있더라고 했다.

● 제보자 : 000씨

· 당시 나는 대구에 나와 있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우리집에서 결혼 잔치가 있기 몇 일 전날 산에서 빨치산이 내려왔다. 빨치산이 뭐라고 집에 요구를 한 후 사라졌고, 이 사실을 우리 형님께서 다음날 지서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하자마자 우리 형님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6·25가 터진 후 금방 예비검속되어 아직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곰티재에서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도 유족회 박희춘 대표는 보도연맹 사건에서 이렇게 과장되고 거짓인 보도연맹원이 많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 수는 각 지역에서 상부로 보고된 공비(빨치산) 및 좌익 가담자의 수에 비례해서 할당되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는 공비나 좌익 가담자의 수를 상부에 뺏겨서 보고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별로 할당된 보도연맹원의 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지역 담당자는 자기의 지역에 할당된 보도연맹원 수를 맞추려고 무고한 양민이나 좌익활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기 시작했다.

15. 포항지역

1. 학살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

시 기 : 1950년 7월

장 소 : 장기곶 등대 근처에서

2. 가해자

경찰과 미군

3. 피학살자

보도연맹원등 1,000여명

4. 학살유형

- 1) 보도연맹원에 대한 수장사태
- 2) 미군 전투기나 함포사격에 의한 학살사건

5. 사례 및 증언

포항지역 역시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서,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학살된 곳이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약 1,000여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역 학살의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구룡포 고디곶, 학다리곶에서의 학살이다. 여기서는 시신 20여구가 수습되었고, 구룡포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이 이곳에서 학살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2) 연하제 학살사건. 불행하게도 연하제 학살사건의 유족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학살된 사람은 아마 포항부근 북부지역의 사람들이 처형된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3) 포항 민간인학살 사례의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수장이 있다. 수장의 경우 유족의 증언을 제외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관계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6. 사례 및 증언

여기서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수장사태에 대해 언급하겠다.

남상휘 전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은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작전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처형한 후 포항 앞바다에 수장했다고 말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경찰이 좌익활동혐의로 주민 2백여명을 재판도 없이 처형했으며 해군은 이들 시신을 수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50년 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중령)이었던 남상휘(南相徽.75.뉴욕거주) 예비역 해군준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진화통화에서 "경찰이 50년 7월 경주.포항.영덕 일원에서 주민 약 200명을 좌익활동혐의로 검거, 소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들을 해군에인계해 함정에 싣고 나가 바닷가에 수장했다"면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을 매달았다"고 말했다. 남씨는 미주 한국일보가 1950년 7월께 한국 해군과 경찰이 포항 앞바다에서 재판도 없이 주민 2백여명을 함상에서 처형, 수장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회상했다.

남씨는 "당시 좌익혐의자에 대한 처형은 포항 뿐만이 아니라 대전 등 많은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처형명령은 군의 경우 국방부, 경찰의 경우 내무부 최고위층으로부터 전언통신문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25전쟁이 터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군.경은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좌익활동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판을 열 겨를이 없었다"면서 "경찰의 협조요청으로 처형된 시신을 함정에 싣고가 수장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살아 있을 때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1946년 해안경비대에 입대,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가한 뒤 49년포항경비부 사령관, 52년 해병 제1전투단 부단장 등으로 참전, 많은 훈장을 받았다. 그는 1959-60년 해병 제1전투여단장(준장)을 거쳐 진해 해병교육기지사령관으로 있을 때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당시 이한림 육군 1군사령관 등과 함께 반혁명분자로 체포, 예편됐으며 61년8월 도미,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한국일보,2000.1. 11)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포항지역 민간인학살을 조사했던 김상섭씨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남상휘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장기곶 등대 근처에서 총살 후 수장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변가로 떠밀려 온 사체를 직접 수습한 안소악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사체에는 총상이 전혀 없었고, 손과 목이 결박된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수장된 위치도 장기곶 등대 근처라는데 김상섭씨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섭씨는 남상휘 장군이 갑자기 양심선언을 하게 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V. 경남남도

16. 거제지역

1. 시기 및 지역

1949년 4월~1950년 7월 25일까지

경남 거제군 동부면 평지마을, 구조라, 둔덕면 산방산, 하청면 하청리, 하청면 유계마을

2. 가해자

백골·호림·백호·비호부대 등, 우익단체인 민보단과 CIC(육군 방첩대, 이후 특무대)·HID(헌병대)·G-2(해군첩보대) 등이 직간접적으로 학살에 개입

3. 민간인 피학살자

총 수는 약878여 명 된다. 1960년 국회 조사에서는 44명(유족측 200명), 1989년 거제경찰서 조사 400명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 학살유형

- 1)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한국전쟁 전 : 거제지역의 야산대들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백골·호림·백호·비호부대 등
- 2) 7월 25일 3차례나 이루어졌다.
- 3) 보도연맹사건

5. 사례

- 1) 개인적 감정에 의한 학살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6·25동란을 전후하여 무고한 민간인 7백 여명이 빨갱이로 몰려 죽어갔던 거제도-이 몸서리쳐지는 대학살을 저지른 주모자들이 사형 또는 30년의 장기형을 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못되어 석방되고 그들은 과거의 죄상은 “내 몰라”라는 듯! 갖은 핑포를 부리고 있는 사실이 유족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다. 30일 하오 거제군 사동면 성포리 정인선(鄭仁善, 39)여인은 만 10여년 전 억울하게 경찰에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본사를 찾아와서 울며 호소했다.

같은 날 충무시 문화동 168 김용태(金容泰), 거제군 동부면의회 의장 윤용용(尹應勇)씨도 본사를 찾아와서 당시의 학살자 거제군 동부면 산촌리 이채환(李采權), 강화봉(姜和鳳), 유기봉(柳基奉) 3명을 유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고발하면서 참회 없는 이들에 정의의 철폐가 내려질 것을 강경히 요구했다. 김, 윤 양씨가 고발하는 내용에 의하면 6·25동란이 발생한 83(1950)년 8월 살인단체로 도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던 “동지회”의 동부면 지부장이자 민보단장인 이채환(48), 당시 거제경찰서 사찰주임 강화봉, CIC과견대 첩보원 유기봉(동부면 탑포리 거주)등 3명은 장승포읍 배삼식(裴 植), CIC거제군 과견대장 황창록(黃昌綠)과 공모하여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 김영수(金榮洙, 당시 64), 그동생 김관수(당시 51), 장승포 박삼수(朴 守, 당시 50)외 많은 민간인들을 사소한 감정으로 “빨갱이”로 몰아서 거제경찰서 앞바다에서 총살하여 수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포리 정인선여인에 의하면 남편 박성환(朴成煥, 당시 31)씨는 6·25가 일어난 얼마 뒤인 음력 6월 2일 당시 사동면 부면장으로 있었던 남편이 거제경찰서로 불려간 뒤 그길로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남편 박성환씨는 스물아홉살 때부터 사동면 부장을 해왔었다. 경찰의 출두명령을 받고 당시 5·30선거를 마친 뒤라 선거관계에 대한 문의가 있는가하여 부인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버스”편으로 옥십리나 되는 장승포경찰서로 향한 것이 결국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다.

정여인은 남편의 죽음은 당시 성포리 한청단장이었던 신용완(辛容完)씨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해방직후 신용완씨가 하청리에서 의사를 하고 있을 때 모부락민과 싸워 동네에서 쫓겨난 일이 있는데 그때 남편 박씨가 통영에서 정모의사를 불려 들었다는 것이다. 신씨는 그 보복으로 당시의 권력을 미끼로 음모를 꾸민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성포리 국민회장은 조흥갑(曹興甲)씨이며, 지서주임 주영홍(朱永洪, 지금 하동서장)씨였는데 이들에 의하여 부락민으로부터 모범청년이라고 칭찬 받아오던 남편이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정여인은 그의 남편은 경찰에서 의심받은 일도 없었고 좌익사상은 더구나 없었다는 것이다.

정여인은 남편이 떠난 해 세 살 나던 딸은 열네 살의 처녀가 되고 그해 난 아들은 열한살의 소년으로 자라고 있으나 아버지 없는 두 아이를 기르며 원한과 눈물, 그리고 분노의 나날을 보내오다가 이번 진정서를 꾸며 관계 요로에 발송하고 또 고발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윤용용 양씨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살자들의 유가족들의 고발로 당시 부산계엄민사부의 조사결과 그 죄가 백일하에 폭로되어 고등군법회의에서 각기 무거운 유죄판결을 내렸던 이채환, 강화봉, 배삼식, 황창록 4명은 사형, 유기봉은 30년의 징역언도를 내렸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에 의하면 그 뒤 감옥 속에서 배삼식은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인지 옥중자살을 하였고 황창록은 천벌을 받아 병사하고 이채환은

1년도 채못된 84(1951)년 9월 17일 “잔형면제”로, 강화봉은 85(1952)년 12월 4일 “형집행정지”로, 그리고 유기봉은 85(1952)년 3월 1일 “3·1절 특사”로 각각 석방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살인귀의 석방에 의아심을 품고 그 경위를 조사해 본 결과 이채환의 석방 뒤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의 형 이채오(李采五)씨의 정치적 활동이 작용된 것이라는 것이다.

2) 토벌대(거제도에 들어온 것은 비정규 군대와 일부 마산주둔 부대)에 의해 국회 양민 학살사건 조사단은 5일 경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해, 울산, 통영, 마산, 거제지구의 유가족들을 불러 하오 늦게까지 그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유가족들의 증언은 6·25전선이 가장 위태했던 83년(1950) 7월 군과 경찰의 “빨갱이”처치가 진짜 야산대는 살려두고 무식한 까닭과 사원(私怨)의 모함에서 수다한 생명들을 앗아간 실례를 들려주었다. 괴뢰군이 통영까지 치밀고 온 당시의 거제도에는 20, 30명의 야산대가 구석총 몇자루를 들고 산골자기에서 버텼다. 야산대 토벌에는 호림(虎林), 백호(白虎)부대들은 경찰을 앞장세우고 우선 부락에 남은 보도연맹부터 처치하기 시작했다. 미리 놀란 보도연맹이나 또 아니 민간인들은 산으로 숨어 억지 야산대가 되었고 이러한 야산대의 가족들이 끌려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거제도내 약 2백명으로 추산되는 해변가의 총격과 산골의 소탕전이 끝난 후 야산대장 윤병수(尹炳守), 이형도(李형도)는 여전히 섬내를 활보했고 “앵초(연초)”리 출신 윤해군대령의 동생은 사형언도의 집행이 중지까지 되었다 한다.

박남이(朴南伊, 여, 58), 옥말분(玉末粉, 여, 33) 등 여인들은 남편이 보도연맹의 낙인을 찍혀 총살당했으나 그들은 모두 인민위원회 명부에 속아서 도장을 찍었고 영문모르는 보도연맹이 되어 죽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은 해방직후 국민회나 시군대책위원회나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던 것이지만 국민회에 도장 찍으라고 권유해서 손도장 하나 찍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다.

박달도(朴達道, 남, 31)씨의 부친 박삼춘씨는 국민회군당 회장까지 지낸 거제도의 우익지도자였다. 바닷가로 끌려간 그는 “개같은 놈 손에 못 죽겠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을 총질 당했다. 그 후 하도 억울한 유가족들은 김종덕, 이우조, 윤행일, 강화백(사찰주임)들이 장승포양조장에 모여 박삼춘을 없애자고 모의한 사실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거제출신 국회의원이 채오씨와 한패인 그들은 거제에서의 선거기반을 더욱 굳건히 닦기 위해 경찰과 짜서 반대파 두목을 처치한 것이라고 유족들은 말했다.

역시 “빨갱이”로 몰려 총살당한 박성환씨는 보도연맹도 아니었다. 사동면 부면장을 지냈던 그는 재직 당시 의사 신용환씨가 칼부림 소동을 일으켰기에 다른 의사를 사동면에서 개업하도록 주선해 준 일이 있다. 신용환씨는 “박성환 이놈 안 죽이고 마는가 봐라”고 욕설을 퍼붓고 돌아다니자 이 사태가 일어났고 경찰

이 “5·30선거 관계로 물어볼 일이 있다”고 호출해서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거제도의 학살사건은 6·25를 앞둔 그 전 해에 있었던 만큼 그 무법성과 악랄성은 다른 지역의 그것보다 끔찍하고 악의 선구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규군인도 아닌 북한에서 남하한 일부의 청년으로 조직된 소위 의용공비 토벌대로 방금 정국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성주(金聖柱)불법사형집행사건”의 문제의 피살자 김성주가 살아있을 때 그가 영도하고 스스로 부대장이 된 호림부대와 마산 16(18?)연대에서 파견된 부대가 저지른 학살사건인 것이다.

단기 4282년(1949), 6·25동란의 전해 지리산지구를 비롯해서 거제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약간의 공비출몰로 卍지구엔 치안이 흐려져 있었다. 당시 마산에 본거지를 둔 16연대의 일부가 거제도에 주둔하고 때를 같이하여 김성주가 인솔하는 호림부대가 연초, 동부 등지에 주둔하여 공비 토벌작전에 임했다. 당시 그곳도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비들은 극히 미미한 수에 불과하고 그들의 무력도 보잘것없는 원시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기 양 부대의 전과라는 것은 수백명의 공산 “빨치산”들을 사살하였다고 국방부에 보고되었다고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실은 “빨치산”사살의 수는 미미한 것이고 그들의 전과를 올리고 과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사살되었을 뿐이다. 당시 사찰간부도 호림부대라 하면 별별 떨었다는 이 무시무시한 살인부대의 행적은 십여년이라는 세월 속에 매몰되어왔으나 이번 민주혁명을 계기로 그 죄악의 일부가 드러났다. 여기 죽음의 거제도에서 천명으로 살아나 온 수삼인의 이야기로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더듬어 본다. 현재 부산시내 초량동에 거주하는 백운삼(白雲三)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연다.

“아름다운 사연이라면 오래 기억속에 남기고 싶지만 두 번 겪지 못할 흉악하고 몹서리치는 곤욕의 일은 쉬이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무친 원한은 십년이 하루 같으니 딱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그때 꼭 10년 전 철이 이맘때였지요. 늦은 봄 감꽃이 한창 필 무렵 감꽃처럼 떨어져간 수많은 목숨이어서 사형수 36호는 죽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끝이 흐려진 백씨는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당시의 일들을 전설처럼 담담히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 총살예정자 20명” 누구의 입에선가 흘러.....나 흐려지면 지독하게 맞고 먼저 총살당하기 마련이니 그럴 수밖에, 이윽고 좌수에게 아침 주먹밥이 나누어졌다. 사실상 마지막 먹는 사주밥이다. 오늘 20명이 총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두감방에 누구를 죽일총살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사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호가 변경되고 “1번에

서 40번까지 나오라” 죽음의 서열번호를 말하는 것이다. 40명은 일제히 감방앞 마당에 도열하고 포승줄(못줄)로 굴비 두름 위듯이 묶여졌다. 누구도 말을 건네는 일없고, 잿빛 얼굴로 집행자의 일거 일동을 살필 뿐이다. 이내 출발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목불인견의 고문으로 반죽음이 되어 숨만 붙어 있는 자가 형장까지 걸어갈 수는 없었다.

이래서 보행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묶인 채 이를 엮었다.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길을 인도하고 모두가 그 뒤를 기진맥진하여 따르고 총을 맨 집행자와 시체를 처리할 부락민이 그 뒤를 이었다. 푸른 보리밭을 지나 개울을 건너 후미진 골짜기에다 달랐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몇몇의 군인들에게 의하여 저질러졌다. 그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라 주민들의 수난

이곳 거제에서 70평생을 전문수산인으로 살아온 강정태(구조라 거주)는 사랑하는 동생 정수씨(당시 21세)를 잃었다. 강씨는 공무원 어업조합 이사 등을 거쳐 퇴직한 그 날까지 항상 수산 어업계에서 일해왔다. 그는 동생이 빨갱이로 몰려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다며 동생의 죽음은 순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치안이 허술해 밤만 되면 산에서 빨치산들이 내려와 마을 청년들에게 남로당의 하부조직인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기를 종용했다. 또 양식을 빼앗아가는 등 갖은 일들이 일어났다.

한편, 경찰은 경찰대로 낮에 형사들을 보내어 주민들에게 빨치산들의 행적을 대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강씨의 동생인 정수씨는 집안가족들이 거의 다 우익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 자연 빨치산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야밤에 산에서 내려온 자들은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고 싶으면 “민청”에 가입하라고 협박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위장가입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길 경찰들이 아니었다. 형사들이 들어와 그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과가 나오지 않자 하는 수없이 그를 풀어주고 말았다.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구조라주민들은 끊임없는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950년 4월 근처 동부면 구천에 주둔해 있던 육군 백골부대(부대장 김종원)의 군인 60명이 구조라로 들어왔다. 그들은 마을로 들이닥치자마자 마을입구 두 곳을 완전차단하고 일체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그리고는 이 마을 구장인 노길필(80, 당시 41세)씨를 불러 세웠다.

“구장, 오늘부터 우리 부대가 이곳 지역 야산대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니 지금부터 60명의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라.”며 한 장교가 명령했다. 그러나 노씨는 기가 막혀 고기를 잡아 근근히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무슨 수로 60명의 밥을 끼니마다 지을 수 있겠느냐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 장교는 화를 내며 노길필씨를 칼빈총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쳐버렸다 한다. 노씨가 “옥”

하고 쓰러지자 옆에 서있던 군인 서너명이 달려들어 반죽음을 시켜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새파랗게 겁에 질려버렸다.

“이 새끼 국군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곳에 빨갱이가 많구만”하며 “지금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빨갱이를 찾아내라”고 그 장교가 말했다. 근근히 몸을 일으킨 노씨는 하는 수 없이 쌀을 구해 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서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밥을 해서 들고 갈땐 바로 서서 가지못했습니다.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이고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당시 공포에 쌓였던 마을 분위기를 정행길(72, 구조라리, 당시 33세)씨는 증언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보유한 곡식을 모조리 거두어 백골부대 군인들의 밥을 해주고 수발을 든지 거제 1개월 후인 50년 5월 6일이었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마을앞 해변가로 끌어내었다. 워낙 악독하게 주민들을 괴롭혀온 그들이 마을주민 전체를 모이게 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있던 주민들도 모두 모이라며 회항을 명령했다. 그래서 울보막 앞에 모두 모였다. 한 장교가 “너희들 속에 빨갱이가 숨어 있다. 그동안 자수하기를 기다렸는데 도저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오늘 너희 모두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울보막 앞에는 1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앞으로 다가올 사태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어장막에 감금되어 며칠동안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으며, 좁은 공간에서 온갖 냄새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 다음날 “막 모여 있는데 앞 산등성이에서 군인 4~5명이 3명의 청년들과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한 군인 ‘야 빨갱이를 잡아시오’ 하면서 손을 들어 보이며, 5명의 청년들을 총부리를 대며 질질 끌고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행길씨는 손과 입을 떨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민들은 모두 죽었구나 하면서 더더욱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부터 군경찰가족 10세미만 어린이 임신부를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간다. 만약에 불응하는 자는 빨갱이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고 그 장교는 말했다. 주민들은 차가운 물도 아랑곳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주민들은 1천여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 또 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가 “옥”하면서 물속에서 텅굴었다. 정덕용 씨였다. 군인들은 주민들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 간 것을 확인하고 “자 이제부터 두줄로 서서 두사람이 마주보면서 뺨을 때리기를 시작한다. 실시!” 하는 구호가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엉거주춤하자 군인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며 빨리하도록 강요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살려면 하는 수없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과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정없이 때리기를 강요했다.

그 악몽은 한 10여분 동안 진행되었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모이라고 하여 얼마전에 산에서 잡아온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장교는 “여기 청년들은 야산대 즉 빨갱이여, 이 놈들이 마을청년이란 것 다 알고 있어”하며 “마을놈들 보니 완전히 빨갱이 소굴이구만” 하면서 그 자리에서 5명의 청년들을 총살시켰다. 그 장교는 똑바로 눈을 떠서 보라고 하자 고개를 돌리는 사람에게 일본도를 뽑아서 위협하며 쳐다보도록 했다. “이제 빨갱이에게 협조하는 자들은 이런 꼴 될 줄 알아”하면서 구조라국민학교로 퇴각했다.

그 당시에 일주일만에 모진 고문과 허위자백을 받아서 총살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길만, 강정수, 김상목, 강정엽, 노길찬(노재경의 숙부) 등이며, 장승포 일본인 신사터에서 총살당한 강간두, 김태일, 강정길 등이다. 또한 구조라 국민학교 교정에서 총살당한 임옥성, 강명용, 둔덕 사람 1명, 노국현의 아들, 전언봉 등이다. 이에 구조라 출신을 포함한 주민들은 총 13명이 총살당했다.

● 그 외 거제지역의 학살사건

동부면 구천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백골부대는 동부면 평지마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마을과 붙어 있는 노자산에는 잔병 빨치산 대원들도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장승포 옥녀봉과 국사봉과 연결되는 빨치산 대원들의 거점지역이라고 하겠다.

이관범(72, 평지 거주)씨는 “노자산 부근에서 일명 빨치산 대원 20~3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하였다.” 라고 말하고 “1949년 4월 그들을 토벌한다고 호령, 백호부대가 구천 마을에 진주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유지들은 이제는 살았다며 한숨 놓았다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 군인들의 진주에 따라 동부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대부분 서북청년단원이며, 동부면 산양, 평지, 구천 마을 청년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라고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토벌대원들은 인근 마을에서 잡아들인 청년들을 야산대원과 관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선량한 청년과 민간인들이었다. 특히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살당한 청년들은 야산대원에게 된장, 고추장, 쌀 등을 주었다는 이유로 죽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총살당한 사람들은 100명 정도인데 구천계곡에서 집단 총살당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다.

또한 거제 둔덕면 산방산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산방산은 일부 빨치산 대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통영 한산도와 가까운 곳이며, 해방후 젊은 청년들의 사회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다. 이 지역의 신옥근(둔덕거주, 당시 면장)씨는 “둔덕면 산방리 산방산에서 조바골이라고 불리는 곳

에 야산대원 토굴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백골부대와 지역 민보단 등이 토벌작전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때가 50년 4월쯤이다. 그때 마을 주민과 청년 등 10여명이 집단 총살당했는데, 그들은 야산대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하청면 하청리 소재에 있는 하청중학교에는 1949년 4월~1950년 4월까지 호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청, 연초면 지역의 청년들을 강제로 검거하여 '빨갱이 색출'작업을 벌였다. 그 당시 김옥문(69, 당시 토벌대원)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토벌대가 49년부터 50년 여름까지 하청중학교에 주둔을 하면서 청년들을 동원하여 토벌을 벌였다. 여기에는 민간조직으로 이장 중심의 민보단을 조직하여 토벌에 적극 동조했다. 그런데 어느날 토벌군이 학교로 청년들을 집합시켜 '요즘 토벌이 시원찮다'며 군인들이 마구 몽둥이로 오뉴월 개 패듯이 맞았다." 그 이후로 청년들은 야산대원이든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을 잡아 토벌군에게 넘겼는데, 그 당시 토벌대에 소탕된 청년 40여명이 집단 총살되었다는 것이다.

하청면 유계마을에 살던 윤태진(유계거주, 농부)씨는 "그때가 49년 7월쯤이다. 하청중학교에 호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송정리 뒤산에서 청, 장년 약 20~30명을 집단 총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은 선량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야산대원이 아닌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되었던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1949년 봄 하청중학교를 본부로 주둔한 백골부대는 이튿날부터 좌익관련 인사들을 색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그 가족 및 친지들을 옥박질렀다. 군인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20여일.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부녀자들은 물론 남정네들도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 하루하루를 불안속에 지내야 했다.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아예 집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트집을 잡혀 빨갱이로 몰리기가 겁이 났기 때문이다. 주둔군들은 이곳에서 부녀자들을 희롱하거나 민간인들의 재산을 수탈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병들게 했다고 생존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하청면 서리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1백여 석의 농사를 짓고 있던 부농 윤씨 집안은 집안의 장손 윤모씨(당시 25세)의 아들이 좌익활동을 한다며 산속으로 들어가자 매일 주둔군들에게 자식의 출처를 강요받아야만 했다. 처음에는 신사적이던 군인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자 무자비한 구타를 하며 적극적인 고문에 나섰다. 윤씨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까지 불러들여 연 10일을 몽둥이로 패다가 고춧가루를 먹었다가하는 모진 고문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윤씨는 노이로제가 걸려 반 미쳐버렸다.

"다라에 있다" "오늘 아침 마산에 갔다"는 식으로 몽둥이가 무서워 이리저리 둘러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 군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심한 매질뿐이었다. 이후로 하청일대에서는 "OO는 빨갱이 소리만 들어도 미친

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윤씨는 이북 이야기가 나오면 반 미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결국 윤씨는 그때의 고문으로 몸을 상해 그후 몇 년동안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어 고생만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당시 이곳의 사정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빨치산이 된 좌익들의 극성이 대단했다. 연일 밤이면 안면 있는 청장년들을 동리 포강에 끌고 가 좌익에 협조하라며 괴롭혔다. 그때 그들의 괴롭힘을 못 이겨 인장을 찍은 사람들은 일부 빨치산 지도자들이 체포됨으로써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다. 생존주민 심모씨(79)는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매일 하청을 비롯 장목·연초등지에서 혐의자들을 잡아들이는데 밤이 되면 수십발의 총소리가 들리고 다음날 아침 무고한 양만 한 두명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다. 자신과 친분이 있던 신인규씨, 신명구씨등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죽어 갔다는 것이다. 신인규씨는 정말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다 한다. 당시 그는 35세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예수믿고 착실한 사람인데 절대 빨갱이짓 안했심미다" 좁은 동네라 "누가 좌익이고 누가 우익인지 험히 안다"는 증언자 심씨는 신씨의 죽음이 담배 한 개비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신씨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좌익혐의로 체포된 친구에게 담배를 건넸다가 군인들에게 적발, 비밀누설죄 및 좌익동조세력으로 몰려 처형됐다는 것. 부두에 끌려가 처넣었다 꺼냈다하기를 수십번 당하고 난후 하청중학교 임시 감옥에 수감된 친구의 측은하기 작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시 면서기였던 그는 아무런 생각없이 피우던 담배를 전하다 이유없이 죽어갔던 것이다. 이때는 전쟁중도 아니고 또 빨치산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도 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후방교란과 소요를 방지키 위한 목적으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생존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좌익세력야야 사상대립으로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했지만 그 가족들이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는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조사를 끝낸 후에 처벌을 했어야만했다는 것이다.

하청·장목·연초 일대에서 잡혀온 20여명의 좌익세력과 1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은 하송에서 옥포로 넘어가는 송정 고갯길 언덕에서 총살당했다. 이들 또한 스스로의 무덤을 파야했고 그 구덩이에 내 던져졌다. 친지들도 부역으로 끌려나가 부모, 자식, 형제들의 시신을 직접 처리해야만 했다. 자식의 죄를 뒤집어쓰고 모진 고초를 당하던 순박한 농민 중에 웃지 못할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있다. 하청면 실전에서 농사일을 하던 이모씨. 이씨는 살아 생전에 몹쓸 놈의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님두리 했다한다. 나라에 반역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분탕질이나 해댄다며 자식을 몹시도 원망했다. 하청중학교에서 취조를 받고 3일간 그는 물한모금 입에 대지 못하고 생전 처음으로 지옥을 경험했다. 허리꺾기, 몽둥이 찜질, 물고문 등 저승이 왔다갔다하는 고초를 겪은 그는 사안에서 실전으로 넘어오면서 고갯길 한켠에서 돌로 자신의 성기를 잘랐다. 그것이 못된 아

들을 생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우직하고 양순한 농민이었다.

2) 연초보도연맹사건은 다른 지역과는 색다른 유형이다.

49년쯤(오기 46년 10월) 정부의 보리수매공출에 반발한 농민들의 집단 항의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보도연맹원들이 대거 양산되었다. 사상에 의한 좌익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어쩔수 없이 빨갱이가 됐고 또 좌경으로 몰려 버렸다.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출에 반대하는 농민시위 속에 좌익세력이 포가 암약 활동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늑속으로 빠져 들어갔는 것이다. 또 사찰기관과 CIC측은 매로써 보도연맹가입을 강요했고 도장을 찍으면 풀어준다고 회유책을 써 보도연맹원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당시 '씨아씨(CIC)은다' 하면 산천초목이 떨고 울던 아이도 조용했다며 무서웠던 군 정보기관에 대해 곧잘 이야기하곤 했다.

형이 보도연맹위원장을 하면서 극렬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 연초면 연초리에 거주하던 당시 35세이던 손재철씨. 형 손재원씨가 세포활동을 하면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조사하던 경찰은 10여회의 취조 끝에 혐의를 풀고 나서는 형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빨치산이 된 형이 자신에게 행방을 알려 줄리는 만무한 노릇이었다. 그래도 뒤에 진주한 군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다그쳤다. 아침에 왔다 갔다 밤에 와서 양식을 퍼갔나 하며 고문에 고문을 계속했다. 20여일을 옥박지르던 주둔군이 49년 5월 어느 날 그를 데리고 하청쪽으로 간 뒤 손씨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송정고개에서 처형돼 산속에 묻혀 버렸다고 생존자인 윤맹호씨(72, 연사거주)는 증언하고 있다. 전쟁발발 직후에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수장된 사람들이 있다. 당시 총무에서 공무원을 하던 윤병삼씨와 윤창구씨. 인민군이 곧 들이닥친다는 소문에 급히 피난을 온 두사람은 친척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멀리 이수도쪽으로 피난을 권유했다. 이것이 유언비어 혐의에 의한 처형 이유가 됐던 것이다.

또한 김숙용씨(77, 신현읍 고현리 거주)는 형님(김만용)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바로 터진 이후로 마산형무소로 끌려가 수장 당했다" 라고 했다. 그는 같은 마을 청년들도 보도연맹원이라고 해서 거제경찰서 형사들이 와서 끌고 가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그들은 신현읍 수월리 제산 마을의 김주란, 김주임, 김주배, 정국수, 김극린, 김주홍, 정한기, 정봉기, 김낙운외 6명, 해명 마을에 옥원석, 손문찬, 변중도의 7명, 저산·양정 2개 마을 주민도 각각 20여 명쯤 되었다.

● 피해자 증언

촬영장소: 경남 거제도 방파제 부근

인물: 서철운 유족회장, 강명용 총무, 전갑생

강명용: 전에 인제 시체는 미조라에 미조라 저쪽으로 그 때 떠내려와가지고

강명용: 그런 일을 당해봐노니까 뭐 모르고 그걸 인자 우리가 이야기 들어서 인제 아는 거죠.

Q. 국회,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서철운: 통합법안 그것 때문에 법안 관계 때문에...

서철운: 떠날 생각은 없었지예. 우예 없었나하면은 우리 조상 선조 묘지가 산소가 여기 전부 여 다 있고 또 단 데 가 가보니 뭐 뭐하겠어요. 여 안태배긴데 마 우리는 사실은 내 바로 위에 형이 뭐 수장됐거던. 근데 마 언젠가는 요기 한 번 밝혀질까라고 참마로 이마 민주주의가 확실히 돼가지고 뭐 이 이런 세상이 다시 올까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지.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가는 이거는 우리 항상 맘에 그 때 뭐 나이 스무살이라도 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 정말 이 진실을 한번 밝혀야된다가는 거를. 뭐 재판도 없이 바로 양민학살인데 그 비정규국군이 거던 마산서 온 사람들이 이북서 온 사람들이 월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몽치가지고 그냥 군인이라고 이래돼가지고 바로 그 이북서 내려온 사람이 바로 그 악질이거든 전쟁터에서 바로 피난내려와노니까로 그 사람들 해는계로 얼마나 악질, 여 와서 뭐 조금 거 하면 전부 총살로 그양 마 거친 거는 저그 손에 마 조금 거 하면 가면서 그래 쫓부리고 지져뿌려도 여럿이 그양 치고 가면서 내가농구 막 그양 쫓부리고 이 지랄 했는데 재판 하나 없이 말이야 그 누구 명령으로 그리했노 모르지마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밤에 야산대가 내려와가지고 위협을 준 다말이야 담배 한 갑 사 돌려 우리 배가 고픈 게 밥 좀 달라 그 인간으로서 밥을 안줄 수 있어야지 그 밥을. 그래 식은 밥을 주며는 그 한 날 딱 거기 뭔가 이 뭐 정보원들이 딱 알아가지고 뭐 경찰서에 잡아가가지고 그양 패 조진게라 허위자백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 보도연맹으로 막 썩워 가입시켜 갖고, 그런 거 전부 수장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엄청시럽게 많았다. 야산대는 국군들이 들와가지고 막 소탕됐지마는 **없는 자기 가족들이 그만큼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갖고 그래갖고 그 병이 나가지고 제 수명을 못 살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많다고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며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나 모르지마는 가해자들이 이래선 안돼지.

Q.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가해자들?

서철운: 가해자들이 이리 보른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무슨 몇 분인가 이전에 뭐시 있었어 여 밝혀라꼬 아니 아니 정부에서 인자 이 피해자쪽에서 인제 밝혀라꼬 이리 했는데 가해자쪽에 세력이 세고 현 국회의원은도 있고 그 때 뭐 경찰서장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기 인자 자꾸 안되는 기라 그냥 뭐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라는데 이번에는 뭐 이기 뭐 어느 정도 인자 돼야 되겠지.

Q. 그러며는 그 선생님이 같이 희생되신 거죠, 같은 일로.

인자 많이 썼고 그리고 나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라면서 마 그만 탁 말문을 막으면서 그양 들어가 가더라카네요. 거기 마지막인데 허니까 뭐 그 때 인자 수장이 됐다고 우린 보는데 그 뒤에 맨회를 가니께는 이 사람들이 그 여관을 끼가지고 인제 행상한테 인자 지금 이런 사람 있나 알아봐달라고 있다카는기라. 벌써 사람은 나가빠렸어요. 그 이삼일 한 이틀 그 사이에 사람은 수장돼 버렸는데 있다카는 똑똑한 사람은 쫓 있다. 몇이 있는데 그 사람 마 그 저 수장 안시키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께 돈이 자꾸 들어가는기라 그걸 믿고. 그랑께 나중에 가도가 안되니께는 딱 직접 이제 돈 닭 같은 거 이제 뭐 해가지고 맥이고 이래 해는께는 그거 목은 사람이 나중에는 바로 붙었는기라. 여 아무도 없다 이제 다 나가 빠릿다 그래서 이제 그 때부터 중지를 하고 죽었나부다 그래 하고 나더니 쫓 있으니께로 그양 미조라하는데 요 너머에 요 너머에 그 지선도에서 그 **가 거기에 마 시체가 막 무진장으로 떠밀려 들어갔는기라. 그래 줄에 엮이가지고 이십 명씩 삼십명씩 이래갖고 오는데 줄줄이 엮여가지고 그래 거기 인자 가라앉으라 카고 인자 수장시킬 적에 그 저 뭐시라카노 돌로 돌하고 쇠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 시체가 인제 물에 뜬끼로 거기 가라앉을라카는 거기 들리가지고 인제 같이 떠미리는기라. 그러니께는 그 미조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큰 돌로 채웠는데 그걸로 바다에서 우찌 떠가지고 올리 떠밀려왔느냐 이거거덩. 시체가 원체 많은 게라 그거 뭐 그래 갖고 그 때 인제 우리가 거 가봤는데 시체 찾으러 가니까는 뭐 사람도 뭐 형편없고 고기도 뜯어먹고 눈도 엄꼬 마 그양 마 의복도 마 물에서 마 탈색이 되갓고 마 다 찢어지고 그래 ***마 옮겨 목고 그래가지고 뭐 찾고 왔는데

Q. 시신을 직접 보셨어요?

서철운: 어 시신들은 봤지. 봤는데 마 몽진 것도 뭐 많고 그 뭐 말 그 행태는 말로 문해 눈을 못 보겠더라고 사람이. 사람이 죽으며는 그리되는가 싶은게네 마 우리 자신도 마 굉장이 인생이 죽으며는 저런갑다 싶고. 부어서 물에 불어가지고 죽은 시체가 불어가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자연적으로 찢어지고 그래 마 팔뚝이 허벅지 만하고 마 이래 된 게 손가락도 그양 몽실하게 이래 돼. 그리고 그 래가 결국은 마 또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찾으러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못 찾고 그양 학동이라 카는 곳은 여기서 저기 보이는 학동인데 그 지금 관광진데 거기도 마 엄청시레 떠 밀려왔다 그래. 몇 백구 이런 게 그양 떠밀려 찾으러 많이 다녔어요. 학동이라카는 학동인데 거기도 엄청시리 그 다음에 갈고리라카는 갈고리 거기도 지금 많이 떠밀리고 시체가 그래갖고 어느날 뭐 이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때 몇 년도인가 경찰대학 1기생으로 시험을 딱 쳐 가지고 전부 합격이 다됐는데 원적을 떠어오라고 이런다고 그래 우리도 조금 그 때는 걱정을 했어 연좌제 이게 있다카는 이런 걸 알고, 원적 떠가면 좀 안좋다고 하던데 떠가는 데 뭐 당장 딱 떨어져버리는기라. 원적에? 우리는 그거는 모르제. 띄주면은 봉투에

딱 봉해가지고 보낸게라 그런게 거기서 뭐 학교에서 뭐 경찰대학교에서 뭐 딱 접수한게로 뭐 그 당시에 뭐 그게 인자 연좌제 우리가 피해거든 그게 직접. 하여튼 마 연좌제 피해는 어느 가정 없이 보도연맹이고 마 야산대 마 내려와가지고 마 밥묵을 밥 얻어묵으러 내려와가지고 막 잽히고 이런 사람들 전부다 고만 ** 없는 사람들이 꼭 찻다고. 즉 가족들이 그 사람 안 찾아낸다고 뚜드려 패고 허위자백 받으라고 보도연맹 가입시키고 어 총살 당하고 지금 이 저 지세포 그 항에 에 또 뭐꼬 박? 뭐꼬 그 사람은 구조라의 저기 처남이 야산대에 있었는데 야산텐데 그 사람 안찾아낸다고 지서 가서 잽혀가서 고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집에 와서 있는데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로 지서로 그거 총살시켰거든. 그 아무 관련이 없는데 허위자백을 시켜 고문을 허위자백을 시켜갓구 그 사람 총살시켰거든. 저 자기 그 누이 동생이 지금 **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 저 인자 이 유족회 조직한다고 저 가서 인자 그 정리를 좀 하는데 마 울면서 막 우리 오빠가 그 근거 없는 것을 갖다가 지서에 가서 지서에서 잡아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자백 받아가지고 국군들 들어와 가지고 딱 인 수시켜가지고 지서에 거기서 바로 대중앞에서 그 총살시켰거든. 그런 일도 있는데 너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기라 그래서 양민학살이라 그러는 기라. 그 뭐 본인이 뭐 우찌 뭐 이야기는 어디 지령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야산대라카는 건 그 때 빨갱이라카는 산에 이자 요 산이 높으니까 울루 올라가 가지고 왜 그르냐 하려는 일단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 고문하고 가족들 고문하고 이라니께는 겁을 내서 그냥 피하는 기라 피할 데가 없거덩. 산으로 가빠리는 기라. 국군들 그 와 가지고 인자 토벌하는 게라 그 사람이 잽히는게라 야산대라 해 가지고 인자 어 빨갱이라 해 가지고 이래 그냥 총살시키고 이랬거든. 그러니께 이거 너무 억울한 뭐시 너무많다 이거거덩. 거제도는 그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만큼 많 다카는기라.

Q. 야산대로 죽고, 보도연맹으로 죽고?

서철운: 그렇지. 야산대는 인제 마 산에 임시 피해 올라갔다 경찰한테 잽히고 한 사람이 잽혀가지고 경찰서에 취조를 하려는 불어빠리거든. 어디에 아지트가 있다 어디에 아지트가 있다 그래 몇 명이서 그 사람들 밤에 가서 딱 해싸가지고 가서 딱 잡는기라. 그래 갖고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인자 그 뒤에 국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도 또 몇 놈만 조지면 전부 다 다 잡히게 돼 있는기라. 죄 급한 게로 불고 또 허위자백도 하고 그 가족들까지 마 그래갖고 헛불어 가지고 가족들까지 그양 희생당하고 그런 예가 허양 많았어요. 거제도는 탄 데는 모르지만 그러니께 팔백 응 한 구백명 정도가 지금 희생 당한 걸로 지금 뭐 우젠가는 조사 해가지고 알지마는 878명이라카는 양민학살을 당한 기거든.

Q. 당시 그러면 그 회장님 형님처럼 마지막에 그 거제 경찰서로 끌려가셨던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서철운: 거기 인제 몇 분이고 이제 우리는 모르지 모르는데 뒤에 말로 들으니께는 그 형 그 저 감방이라고 안하는가 그 개인들 영는 경찰서 유치장 거기 엄청 시럽게 많고 컸는데 그게 차고 넘어가지고 창고까지 무기창고니 뭐 그런데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다 카거던. 그러니께는 뒤에 들은 이야기지마는 누가 면회를 간께 창고에서 물 좀 달라고 그양 애원을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 뭐 경비원들이 그양 뭐 총을 갖고 밀어 썬 마 쳐 가지고 안에 쪼까 열고 말이야 그러니께 손을 내밀어가 물 좀 달라고는 그 여름이거든. 오월유월달인께네 그 갖다 쳐여놓는께라 덤고 배고프고 물먹고 싶고 한데 소리 지른다고 개머리판으로 가 쳐갖고 안에 집어넣고 이라는데 그래가지고 골병을 고문해갖고 골병을 다 들여가지고 마지막에 수장시켜 버렸다꼬.

전갑생: 오유월이면 음력?

서철운: 그렇지. 음력으로 유월. 바로 *** 보리까지 나고 그 더울 때

Q. 혹시 그 지서에서 급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 지서로 내려오는 어떤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 같은 거는?

서철운: 고거는 우리가 모르지. 그건 모르지. 우리는 그거는 비밀 문서거든 일단 지서에 공문이 하달되며는 뭐 그거 뭐뭐 통신망이고 전부다 하고 뭐뭐 물론 공문도 오지마는 그런 거는 우리는 뭐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 그 다음에 마 싸이렌 불라면 싸이렌 불고 담배 사와라 카른 담배 사다주고 그게 그때 급사라구.

전갑생: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게 아니었네요.

Q. 닭이며 뭐 이렇게 쥐 가지고 계속 형님이 돌아가신 거 알면서도 받으신 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분이 혹시 그 형님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 얘기 자세하게 해주시지는...

서철운: 아, 그 사람이 어찌 아노. 말론 몬하지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며는 일단 돈을 쓴께는 그걸 먹을라꼬 살아있다. () 뭐 거기 서철남이란 사람 거기 있다. 이래가지고 뒤에 자꾸 우리는 사람을 돈을 갖고 인자 결국은 너무 아까운께라 너무 아까운께네 그 때 인제 뭐 양계도 하고 **도 하고 이라니께는 살기가 좀 나았다카는게제. 그러는께는 우쨌든 저 사람 아까운께는 우리 큰 행님이 그래 이제 널라꼬 약을 쓰다 없던데 약을 다 써버리고 다른 벌써 수장 돼 뿌렸는데 어떤 놈이 그냥 자꾸 받아먹은기라. 그래 나중에 인자 진실을 인자 그 한 사람만 우쨌 통해갖고 행사를 딱 직접 만나본 게 벌써 그 사람은 벌써 나갔다. 하나도 엄따 이래 돼뿌린기라. 그 때 그때서 인자 우리 막 포기하고 근데 그 옆에 방에서 오늘 지난밤에 나갔다. 뱃소리 나고 막 사람 소리가 드글드글하니 마 수십명이 나가는 소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조금 있웅게 배 소리가 나더라 근데 뭐 인제 거제 신문에 인터뷰 할 적에는 뱃소리가 났다고 그러는게라. 고동을 울렸다고 이래 있는 기라. 그 고동 울린 이유가 엄거던. 살짝 나가는 건

데 빠지러 가는데 고동 울리 고동 울렀다고 함 나 뱃소리가 났다 이랬는데 고동 울렸다고 이래 보도가 나갔더라고 그게 그런 거시 잘못이제.

Q. 선생님 성함하구요,

서철운: 나는 서철안이고 철안 쇠 철자 편할 안자. 에 내 위에 형님은 쇠철자 바위암자 철암 철암 그래 나하고 세살 차이나.

Q. 형님이 그 때 몇 살이셨어요?

서철운: 그 때 스물 세 살. 나가 스무살. 그래 ** 있다가 얼마 안가서 마 군대갔지

Q. 올해 연세?

서철운: 칠십

Q. 지금 하시는 일은?

서철운: 내가요? 나는 지금 인제 우리 그 하나 그놈이 그 경찰대학 1기생으로 들어가갖고 인자 그리 되가지고 연좌제 그거 때문에 못가고 이래 가지고 그 노마가 군대가서 고만 병이 나뉘린 기라. 그 때 막 죽을라꼬 이러더라구 그 부르크 뤼을 적에 그거를 보니께는 연좌제 때문에 그러니께 뭐 나하 그걸 보니께로 말이지 내 행적 때문에 이 자식들까지 이래 맡기면 되는가 싶어서 얼마나 울고 가가 이틀인가 이틀인가 밥을 안 먹고 그래 인제 마 결국 군대 가 가지고 그 뒤로 죽더라고 그 인제 부산 동아대학 졸업하고 군대갔거든. 군대 갔죠. 지금 대전 국립요지 그 있지. 그 뭐 해충약 우리 가는 길에 그래 하고 지금 애가 우리 큰 애가 인자 **에서 대연각. 대연각 이제 그 식당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인자 우리가 받아 칠백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인자 야채 내가지고 가는 우리가 좀 도와주지 뭐 영감할뎀 있어 그래 갖고 이제

Q. 유족회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서철운: 그 유족회는 그 때가 ... 얼마 안됐어요. 올해 올해 여 유족회 발족한 지 얼마 안됐어요. 다른 데 산청 뭐 함양 그런 데서는 뭐 몇 년 전부터 했다 카는데 여선 아직까지 그렇겐 안됐어요.

Q. 그 동안은 왜 없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서철운: 응 모르지 그 인제 뭐 플랭카드 붙이고 이랬다카는데 거제 전역에 우리 뭐 항상 차를 타고 다니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 볼 뵈도 없고 통물랐지 나중에 인제 어서 연락이 왔는데 뭐 박물관에서 그런 뭐시기 있다, 신고를 하며는 그 신고 해야한다꼬 그래 인자 알았지. 그래 우리가 늦게 알았지.

Q. 돌아가신 형님이 그럼 둘째 형님이세요?

서철운: 우리는 5남맨데 5남맨데 에 누님은 일찍 세상 떠나고 그 형제간 때문에 우리 형제간이 다 다 일찍이 세상 뒀어요. 우리 큰 형님도 그 마 경찰서에 가서 마 닭 갖다주고 한 그 사람도 49세 50세도 못 넘간을끼야 그양 세상 떠났고 그 형제때때 골병이 다 들었어요. 그래 맨날 술 마시고 그 하고 나도 참말 자살할라

했어요. 그 때 어릴 때 마음이지마는 그사람이 내 대학교까지 다 공부시키겠다 이래했거덩. 의사 해가지고. 그래 인제 뭐 그 때 의사 당시 뭐 처음에 조금 하던 댜신데 그래 그렇게 나는 억울하게 됐어요. 내 신세가 그라 안하든 나 공무원이라도 할 뵈인데 그냥 우리가 나는 고만 형제간 다 죽고 인제 아무도 없지, 나 혼자지. 지금 독신이요. 우리 아도 독신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 참 과거를 내 생각하면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아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 우리 애도 하나 희생당했제. 나는 이런 액운이 왜 이리 대대로 이리 액운이 닥치노 이래가 어떤 때는 조금 따신 음식을 해도 그양 밥숟갈 탁 놓고 내가 마 나가서 우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골병이 든 사람이야.

Q. 형님이 그림 그 형님이 셋째 형님이세요? 돌아가신 형님이

서철운: 아 그 저 나 우애끼는 막내형 다음이지 우리 형님 하나는 군대 가서 전사당하고 또 우리 누님은 또 여기서 세상 떠나고 우리 큰 형님은 집에서 세상 떠나고 나 우애 하나 더 수장되고 그 다음에 나고. 형제간에 다 맥을 못 추고 다. 그 행님 그거 행님 때문에 전부다 속에 병이나 뿌린기라 처음부터 숙면을 못 잤으니까. 그래 언젠가는 이게 밝혀져가지고 양민학살 같은 경우는 재판을 당당히 해가지고 법치국가에서 애는 사상이 나쁜끼로 징역을 몇 년 살아라, 사형을 내려야된다 이리 해가지고 죽는 거는 그거는 누가 말해요. 재판 하나 엄씨 그냥 불법적으로 말이지 정규 군인도 전투하는 군인도 아니고 그 때 전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말이지 정규 군인도 아니고 마산서 말이지 저 이북에서 그 여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 갖고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이겠어요. 그래 요리 들어가니 께로 엔간한 사람 다 죽였지. 그때 이승만이 그 때 영감이 참 그 사람 그래 갖고 어데 나가 뭐 하와이 가서 죽었다하지마는 그 사람 그래 죽어야할 사람 아니라. 바로 마 지금같으려는 뭐꼬 능지처형이라카나. 말로 네 다리 두 다리 두 팔로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쪼개며는 짹 쪼개져 죽는 거 죽이는 그케 능지처참이라카는 게거든. 고래해 죽어야되는기야 그 사람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는기라 거제도만 요리 근 900명 죽였지마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죽였어요. 그 양민들이. 그리고 마 육이오 때문에 그 뭐 산청 함양 ** 저 그양 뭐 피난나온 줄 알고 군인들 마 우리 따라오쇼 해갖고 산골짜에 내 갖고 그양 산꼭대기서 마 ****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다 죽여버리고 그런 현실이라 우리 한국이. 그러니 얼마나 비참...

전갑생: 그 다음에는 총무님, 구조라쪽 보도연맹 부분 잘 아세요. 보도연맹 부분 좀 하고...

강명용: 저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저는 들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때 당시 우리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삼촌이 그러니까 한 일년 전... 그래 저는야 삼촌이 먼저 그런 일 당했어요. 그 때 당시 삼촌이 직업이 뭐였나하면 서울 경성 기계공업 고등학교라고 그옛날 학교를 다녔는데 그학교가 그때당시 폐교가 됐던

모양이랴요. 이래가지고 부산에 무슨 고등학교가 그 때 인자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 와서 있다가 인자 촌에 시골로 내려왔는데 그 때 당시는 이제 학생 신분이고 하나니까 그 때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발언과 함께 이런 게 이야기가 좀 거 하고 하나까는 사상 불순이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써 결국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에 몬 있고 뭐 총칼도 없이 아무런 빈 몸으로 그냥 산에 숨어지내다시피 그냥 하다가 결국 잡히가지고 보도연맹보다 한 2년 전에 이래가지고 총살을 당했어요. 요 동네 안에 요 밭 언덕 그 굴 입구에서 총살을 당해가지고 그리 됐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케 인자 그래가 빨갱이 집이다 하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아마 보도연맹에 인자 그렇게됐던 모양이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사변 그 이후 그 입장에서는 보도연맹이란 이기 정책적으로 이래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같은 민방위대원 정도의 머 그런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이런 입장에서 그케 아마 동네 젊은 장정들이 이래가지고 결성이 되고 국가적으로 그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식으로서 아마 그리된 모양이랴요. 그러니까 동네일 같은 데 지방에 무슨 일 같은 게 있으려는 뭐 그 때 나와서 임의대로 동원이 돼가지고 거 하고 이랬는데 그 때 당시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래갖고 경찰버스에 연행되간 조건에서는 그 때부터 우리가 집안에서도 죽을줄은 모르지 거기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는 거고 뭐 이리 된 건데 그래 인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한 때 그 우리가 야산대라든지 그런 어떤 뒤에 있으면서 보도연맹 크로스가 돼가지고 가족적인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서 빨갱이 집안이라고 묶어버리니까 그래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때 인자 뭐 군인들 들어오고 뭐 하고 보도연맹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즉 말하면 마 군인들 앞잡이라든지 정보 전 억울하게 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보며는 동네에서 억울하게 진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저 야산대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 아닌 입장에서 까지는 사람들 뭐 본인이 희생됐으면 됐는데 그런 쪽으로서 전향 아 묶어버리니까 말이지요,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하면서 거기에서 인자 전향을 한 사람들이 보며는 앞잡이 된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입장들이 보며는 자기 개인감정이라든지, 뭐 조금 그런 게 있으려는 어떤 안좋은 방향으로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말이지 아이 그런케 그렇게 된 사람이 꼭 야산대 있다가 전향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집안 가족들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묶여 있다가 군인앞잡이 돼가지고 실제 죽음을 안당한 사람들도 실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많다는 얘기를 내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거기까지 아는 거고 실지 인자 또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뭐 아버님이라든지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어도 사실은 묘가 없습니다. 그 그때 당시 시체 관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고 우리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저 미조라라카는 저기에 말이지 그 때 같이 수장한 그 날짜를 전후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20일 있다가 하여튼 미조라 동네 저기

에 시체가 마 역수로 떠내려왔던 모양이죠. 이래가지고 너무 부패가 돼 노니카 시신까지도 확인이 안되고 전부 그런 입장 정도였고 실제 우리가 그 시대 이후에 우리가 사실이 뭐 이 나이까지 살면서 억울한 거는 그 보도연맹 가족이다 빨갱이 뭐시기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 선술집을 하나 낸다든지 이라든 신원조회를 많이 돌리거든요. 그 행정상 조건에, 그런 거 우리가 어떤 그 직업상의 억울한 거 한을 많이 안고 살았죠. 진짜 천추의 한이 맺히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때로는 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살고 첫째 우리가 가장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해논게 자식들이 생활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참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때까지 억울한 어떤 그런 속에서 사는 진짜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요.

Q. 아버님이 몇 살이셨어요? 그 당시에?

강명용: 아버님이 그 때 당시 서른 한 둘 정도는 됐는 모양이죠. (Q. 선생님은 몇 살?) 올해 오십 셋입니다. (Q. 당시에는?) 그 때 당시 제가 미처 아마 두 살 정도 됐든 모양이에요. 두 살인가 세 살 정도 됐는 모양이에요. 그리돼노니 나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우리가 책자쓰듯이 그래 안하니깐 그건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다카는 거만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런데 뭐 지금 참 솔직히 쪽으로서 그 울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거는 과연 죽을 사람이 죽었느냐 하는 그게 명분적으로 최고였냐 하는 거를 알고 싶어하는 그기고 이 시대 와가지고 솔직히 뭐 민주화란 입장에 이렇게까지 이런 사안을 우리가 이제 밝힐라하는 이거는 우리가 뒤에 결국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시대에 사상적으로 이래가지고 뭐 잘못된 입장이라고 이래 하지마는 과연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법의 어떤 통치하에서도 아닌 거 갖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봐 볼 때 말이죠. 이렇게 한기 아직까지 그런 걸 쫓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Q. 아버님...?

강명용: 우리 할머니가 그 때 계셔서 아는 거고...

Q. 할머니가 뭐라고?

강명용: 할머니도 그 때 경찰서 많이 잡혀갔습니다. 잡혀 가가지고 형사들한테 여러 가지 큰소리 칠 거 치고, 여기서 장승포까지라무 우리가 거리상 한 삼십 리 됩니다. 그러고 그 때 당시는 교통도 안 좋은 입장에 하루 종일 서에 가 잡혀 있다가 그래가 아버님 죽고나서도 그랬어요. 죽고나서도, 예, 죽고나서도 그리 됐고, 마마 그래가지고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어 한풀이를 못해서 쪽에 한이 맺혀서 돌아가셨다캐도아니 아니면 물론 나이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서 가셨지마는 어느 한 가족들 모임에 가며는 날마다 울음바다라요 딴 집에는 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을 빨리 잃고 나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거 우리가 볼 때 크면서 지켜볼 때는 그 못보겠더 라구요. 그 비통함을 그런 세월까지도 우리 많이 겪

고 살아나왔지요.

Q. 할머니께서는 아드님이 없으셨겠네요?

강명용: 그러니까요. 삼촌 아버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없지요 손자라고 내 하나 뿐인 입장이었고 그렇게 되다가 ... 할머니하고 내하고 뭐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우리 누님도 있긴 있는데 그 당시 뭐 우리 성장하는 입장에 출가를 했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동생하고 셋이서 산거죠. 어머님은 그 이후로는 또 재혼을 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그랬고 뭐, 어머님을 거의 이후로는 십한 몇 년 있다가 상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땅 뭐 그런 살림살이 이래가지고 각자 생활해 나오는 그런 입장이지요.

강명용: 뭐 농사나 짓고 뭐 그거였고 우리 역시 그 때 당시 어린 나이지만 어깨에 지게 이게 떨어질 날이 없었지요. 그래 안하며는 생활수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 온 거죠.

Q. 성함 좀?

강명용: 총무님 얼굴 cu에서 TD 받아적는 손과 노트

강명용: 제가예? 강명용

강명용: 오십 셋

Q. 아버님 함자는 어떻게 되세요?

강명용: 강정관. 벼슬 관 ... 그 다음에 삼촌 이름이 강정길

증인장소: 강혁두씨 집 앞 골목

인물: 서철운 유족회장, 당시 11사단 소속병 강혁두

강혁두: 즈그는 우테기 했는데 (# 강혁두 얼굴 옆 모습) 그 때 당시에 우리들은 내가 아가씨 우리 참전용사는 이 뭐꼬. 죽도록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만 당하고 만기 체대까지 한 사람들 이리 일절 담배갑 한 개 나오는 게 있나 이게 뭐꼬

서철운: 그 참전용사 쯤 울어라 울어

서철운: 정부에서 참전용사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뭐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이가

강혁두: 나이 작은 사람, 네 아다시피 올해(# 강혁두, 서철운 마주 보고 얘기하는...) 육십 여덟 아이가 그 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게는 놔놓고 광주사건은 한 사람이 이억 오천이나 타목고 또 연금꺼정 주제 그러든 또 거창 사건 그거는 그리 되뿌리고 아 이 이십만원 한 사람 앞에 이십 만원

서철운: 그런데 광주 518 그것보다도 거창 이런데가 훨씬 중하지 바로 양민이지 저거는

강혁두: 양민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내가 11사단 창설해가지고 거창 사건에 우리

가 그 때 우리가 이등병일 때 아 우리가 군대생활 거기서 굉장하게 우리가 눈으로 봤지마는 그 때는 그리 될 수밖에 없었고 거창에 우리가 1개 대대가

서철운: 그 저 참전했나, 그 당시에 거창 거 사실을 아네...?

강혁두: 거창 사건이 우리 졸병이지 우리 나는....

서철운: 그렇게는 거창 사건에 느그 부대가 주둔했던가배.

강혁두: 우리 11사단 13연대 1대대가 그 거창 먼저 들어갔다꼬. 새벽에 그 앞날 공격할건데 열두시 밥을 묵었는기라 그 앞날 아침밥을 그래 묵고 거창가면 쪼그만 이 참 동네버스 있다고 그 딱 배치가 돼갖고 팔십 일 명이 우리 중대에 () (81명이 **** 아니고?) 박격포. ** 채리고 우리 **이 몇 문이고 하면 팔문이다 그 때 **이 **. 그 딱 채려놓고 대대장 그 날 새도록 안 있었나. 날 새도록 딱 있음께 날이 새고 조직될 만한게 거창 그 학교가 그 때 2층이더라. 나가 그 전부 훈련을 하는기라 저놈들이. 저놈들은 야, 데리구 갈라고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있는기라 그 때 당시 우리 거창 들어간 게 불과해야 민간인 한 백 명 같은 인민군은 여나쁜씩 밖에 아닌기라. 그 때 총도 인민군은 총을 가졌지마는 따라댕기는 사람은 얼키 방맹이시로닥. 시로닥만 갖고 다녀요. 우리는 전라도 공비토벌을 몇 개월을 했다고 11사단이.

서철운: 그 저 뭐고 신문에 보니께로 거기 거창 거기 무슨 우리 따라오니라, 군인 따라강게 뭐 피난시키는 줄 알고 이래 인저 산을 골짜기를 텔리구 가서 양쪽에 서 바로 썩빠렀다 하던데 그양 뭐 어린이들까지 전부 몰사시켰다카던데.

강혁두: 우리는 그 때 당시에 신병이니께 뭐 알 수가 있나 마 또 ***** 정도지. 아 그래 갖다가 그래 갔는데 대장이 명령 딱 내리니까 박격포 그거는 학교에 다 훈련을 하는데다 때렸다 아이가 그렇게 수명씩 팔문이 막 갈렸거든 그러자 소총 소대가 그양 마 썩 들어갔지. 우리 그 때 우리 군인도 아이다. 노골적으로 깨놓고하는 말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 겪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있고, ()

근디 그거하고

강혁두: 그러항게 나 말 들어봐라. 그래 항게 나도 네 아다시피 한 가족이라고

나도. 형제. ** 가보니까 그렇게 안할 수

서철운: 가만 있어 봐라. 필두하곤 너 친형제간이제. 그러면 느그 저 형이 죽었다 말이야, 친 형이?

강혁두: 나 우에. 나 그 바람에 많이도**. 나는 전라도 공비토벌대 길 제까 적도 무슨 죄가 있노 말이야. 내가 일개 분대장 했다고 그 때 뭐시기 젊어놓으께. 창설 사단이 돼논께. 일대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나 말이야 가족들 느그 건드리면 나가 끄래이 엔기면 나가 썩버린다고 마

서철운: 그래 가족들은 그래 할

강혁두: 그 때 그 당시에

서철운: 요는 가족들

강혁두: 친구야 그거는 그때 참석한 사람들 그 뭐 장교들 다 살아있을진데.

서철운: 죽는 놈은 죽고 마 사는 놈은 살고 마 죄가 죄를 받아갖고 자빠질 놈 자 빠지고 나는 인자 그 소리뿌니 만나온다.

강혁두: 장교들은 우리 군에서는 그랄 수밖에 더 있었나 말이요. 총을 쏘면 전부 인민군들하고 따라서 뭐 도망을 다 가더라고 하나도 없고 뭐 집도 마 그양 내놓고 있는고 하고 집집마다 기 다 다라가있고 있었고 그 때 당시는 아들까지 데리고 마 다 산에 올라가 뿌린기라. 날이 인자 밤이 되께 아들 찾아 마 들어오는기라 그 때 소총 소대가 막 잡아오는기라.

서철운: 그랑께로 아들 뭐꼬 군인 따라 갔는데 양쪽에서 산 틈새에서 갈렸다고 하던데 아들까지 마 다 죽었다하대.

강혁두: 우리 대대가 그게 한 일주일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 거창에. 아 우리는 뭐 중화기 중덴께 소총소대 뭐 졸병인께 배속나가라하든 배속나가고 중화기중덴께

서철운: 그 때 얼마나 죽었노. 느그 그 여서

강혁두: 모르지. 거서 썩는데는 우리가 눈으로 안봤으께. 그것도 모르졌고 대신에 내 전주같은 전주 우리가 들어갔거든 전주, 우리 사단이. 전주 그 군인가족, 경찰가족 죽여논 그 무더기. 오백명 저놈들이 후퇴하면서 썩던데. 가보면 말도 못 했다. 우리...

서철운: 여기도 여기도 뭐 구조라 그쪽에 물에 죽었고 할 적에 뭐 경찰 가족하고 국군 가족하고는 오라꼬 그리 하더라. 그거는 원칙이고

강혁두: 그 때 안 들어간 사람 있나 이 모가지 이 이까지 다. 여기 사람 다 물에 다... (...) 나가 그 때 열

서철운: 네가 그 때 요기 있었나? 그 때 구조라 여기서...

강혁두: 그 때 우리 열 여덟살... 나 군대 스무살에 갔는데. 아 열 여섯 살. 내가 잠시 경찰서에서...

서철운: 근데 여 총살은 몇이나 당했나? 요 그 당시

강혁두: 여덟인가 아홉

서철운: 근데 그 저 신문에는 십삼명인가 이렇게 적어나오대.

강혁두: 우리 구조라 사람만 **기라, 구조라 사람만. 내동 사람도 많이 와서 죽었다.

서철운: 옥천 형님도 여 와서 죽었다 하대.

강혁두: 어, 내동 사람들도 rm 때 당시 우리 거제도 사람들...

서철운: 아 그건 인제 고만 야산대든 야산대 빨갱이는 빨갱이 이래갖고 죽인 거는 그거는 또 전시 대 이건 전지도 아니라고 이건 휴전 당신데

강혁두: 봐라 내가 열 여섯 살인데 **대는데 형님 데려다가 **됐는데 (서철운: 고문 많이 당했나?) 허 참 아랑곳도 씨부리갖고 고마 죽는 사람도 안 있었나 (서

철운: 그러니까는)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서철안: 그래, 허위자백해가지고 그 당한 사람이 많다. 그게 이제 억울하다카는) 아, 연속극 안보나.

강혁두: 세상이 그런 세상이든 우리가 잰했다 그리든 뭐 내 욕본 줄 다 안다. (서철운: 술 한 잔 놓고 조용하게 이야기할 때가 안 있겠나)

강혁두: 거창 사건에 그 돈이 그 한 사람한테 **판사가 그 이십 만원에 내, 하참 나 놀랬다. (서철안: 그래, 그거 갖고 있는가?) 그 책자도 아마 ...

서철운: 오일팔 광주는 그 우찌할 건데 바로 그 군인들 직접 총을 쏘고 뭐 그 한 놈도 보상을 얼마 줬는데 이기 이기 군대가서 유족 군인 유족보다 일 억 몇 억씩 주고 이랬는데

강혁두: 1억 5천은 안됐다. 묘지 그 해 본 거 가 봐라 너 가봤나. (서철안: 몰라 잘 해났다카대) 참 돈을 어마어마해갖고 지냈다. 그래도 만 데 묻힌 그 사람들 파서 다 옮겼다고. 불과해 사백명 사백명 밖에 안올려가있다구. 우리 구경하러 갈 때 한 사백명 밖에 안왔더라구.

Q. 거창엘 가셨어요?

강혁두: 거창도 내 가 봤지 내 군대생활 하는 동안 전라도고 어디 다 가 봤다.

Q. 함평이나 이쪽은 가보셨어요?

강혁두: 어? 함평.

서철운: 그러니까 거창 위령 함양 뭐 저리 뭐 씨릿나갑다.

강혁두: 우리가 전라북도 그리든 전부 다 들렸지. 안대긴 데가 없지 지리산부터 우리 사단이 지리산부터 공비토벌했으니까. 우리도 많이 당했다 뭐.

Q. 11사단

서철운: 무슨 부대고?

강혁두: 우리 화랑부대

서철운: 화랑부대가?

강혁두: 어, 우리 창설 진해서 어 저 무스그서 해가지고 우리 대대는 진해서 창설해 갖고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 일주일 밖에 교육 돈 받았다, 이 사람들.

서철운: 그러든 방아쇠다 총 쏘는 그거밖에 못했겠지, 뭐. 그 판인데.

강혁두: 그래 내 진주 간 게 진주같이 그리 많이 부서진 데가 없더라구, 진주는 아무 것도 없더라구. 그 순간에 복개된 버스타고 가면서 도망병이 있어갖고 진주 가서 학생들로 보충시켜 가지고 전방까지 갔다가 그 사람들 제대해 갔다. 우리 전방에 가갖고, 그래 무스길 **는데 전라도는 안대긴 데가 없지 전라북도는

Q. 당시 소속이 군대 소속이 정확히 어떻게 되셨어요?

강혁두: 우리는 11사단 13연대 1대대. 중화기 중대거든 **에선. 우리 중화기 중대가 된게 확실한 뒤스근 모르지만 그 하더라도 졸병이지. 그 때는 우리 장교가 장교가 업섯어. 제주도 **장교들이 바로 왔는기라. 장교로. 방위대 장교가 우리 소대장이고 우리 중대장은 현역 소위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전쟁을 했다, 그 때 당

시. (담배연기 길게 내뿜고) 그래 욕본 줄 안다.

서철운: 뭐 욕볼 게 있나, 앞으로 인제 할 일이 많고

강혁두: 하도 ** 일이 많이 터져싼게 나 하는 소리 아이가.

서철운: 세상이 인자 좀 안달라졌나 입 똑 다물고

강혁두: 대한민국이 잘 사면 그런 것도 좀 보상을 해줘야지. 안 그릇나?

서철운: 입 꼭 다물고 있다 마 인자 마

강혁두: 이 우리 널 모레 죽을진데 이 테레비만 보든 테레비도 보기 싫다꼬. 전부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 돈 훔쳐낼 그거만 궁리하고

서철운: 그래, 그 맛으로 사는 거 아이가 ... 아들 그 못 먹구 살아서 빵 하나 얻어 묵는 그런 것도 집어넣고 즈그는 몇 억이고 뭐 사과케작 갖다가 *****동 그런 놈들은 *** 살고. 그렇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강혁두: 우리가 그래갖고 전라도 공비토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동해 저 갔다 말이야. 동해에 가서 우리가 만날 기습당했다. 그 때 당시에는 인민군 하나 잡으면 한 달간 휴가다. 그때 돈 15만원씩 현찰 주기로 되가 있었는기라.

서철운: 그 때 무기가 뭐

(갑자기 막 화내는 아주머니 목소리 끼어들)

강혁두: (뒤돌아보더니) 전쟁한다. 저 ... 잘 해서 또 나도 내 손주들이 다

대학생이고 뭐 이런 데 이거 해가지고 좀 *** 살 것응게 지금 우리 이 구조라도 지금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는 기. 절대 이북하고는 이기 합의 안된다. 만파 쥐봐야 뭐 말 안듣는다 거.

Q.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혁두: 강혁두 ... 아까 그 강필두가 나 바로 우에다. 나 우에 형님이 돌아가셨어

Q. 그럼 올해 연배가...?

강혁두: 나 칠십 하나.

서철운: 1회 선배 나는 1회 후배 초등학교.

강혁두: 우리 학생들 수고를 많이 해라. 좀 고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남보단 *** 살고 싶지. 우리 관광도 많이 땡겨 봤지만 아직 우리나라 딱 데가 보든 잘 사는 나라다.

17. 통영지역

1. 시기

1950년 8월 14~15일과 1950년 8월 17일~22일

2. 학살자

군대와 군정보기관(CIC·HID·G-2) 그리고 우익민간단체(대한청년단 등)들이 다. 특히 헌병대에서 문관으로 있던 이양조(본명 이판석, 수석 문관)씨외 10명 등

3. 희생자는 800여명 이상

4. 유형

수장되거나 즉결 처형, 집단총살.

이중에도 바다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5. 사례

1) 먼저 개인의 감정에 의하여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사건

아내도 믿을 수 없었던 11년전 단하나의 아들을 며느리의 욕정의 제물로 잃고 충무시 명정동 303 가난한 딸집에 여생을 기탁하고 있는 옥금수(65)노파는 “이 원통함을 시민에게 알려주오 살기 싫으면 그냥두지 내아들을”하고 저주와 비문이 뒤섞인 말로 아들의 죽음을 통분하고 있다. 옥 노인의 외아들 이화도(39)씨는 아내에게 빨갱이로 몰려 죽기 5년전 명정동에 있는 안옥선 여인과 결혼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유산도 없다 선친이 남겨준 튼튼한 몸으로 지갯벌이, 날뽕밭이 생활을 하여 왔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안여인은 노동하는 남편을 싫어했다. 얼마가지 앓아 자식까지 낳게 되어 두사이를 매어두기는 했으나 아이마저 병들어 죽어버렸다. 이때부터 이씨에 대한 안여인의 경멸감은 형언할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안여인의 욕정과 허영은 하나의 죄의식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공산군의 남침 6.26동란은 수없는 인명을 빼앗고 가제를 파괴한 비극이었으나 안여인에게는 평소 품고 오던 낭만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인민군이 충무시를 쳐들어오던 50년 8월 16일 이씨는 난을 피해 통영군 산양면 남전마을로 피난을 한틈에 안여인은 진주한 해병대 병조장 양모씨와 정을 맺었다. 안여인은 이 사실이 탄로될까 두려워 일주일만에 되돌아온 남편을 정부와 결탁하여 빨갱이로 몰았다. 무시무시한 음모가 꾸며진줄 모르고 피난에서 돌아온 이씨는 때마침 2명의 부역자를 앞세우고 가는 헌병에게 붙들려 8월 22일 총렬사

에서 내다보이는 안산잔숲이 우거진곶에서 아내의 욕정의 제물로 죽게된 것이라고 말하고 옥노인은 긴한숨을 내쉬었다. 옥노인은 계속해서 이씨가 총살된 곳은 안여인의 친정집에서 불과 20미터 밖에 안 떨어진 뒤뜰이라 한다. 여기까지 말한 옥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나왔다. 자기 혼자의 욕정의 만족을 패우기위해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죽인 안여인은 지금 당시 양병장이란 사람과 부산에서 살고 있다 한다.

2) 군인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에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군과 정보부대, 우익단체 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족 탁복수, 조성수, 김수태, 김선이, 이성오씨등 8명이 폭로한 민간인학살은 북한군이 충무시에 침입한 83(1950)년 8월 16일을 기해 감행되었다. 당시 충무시까지 북한군이 침투 공격해오자 계엄사령부 주둔부대(주둔관 해군대위 박태진) 진해헌병대 통영파견대(대장 해군중위 오덕선), CIC, G-2, HID, 민간단체로서 해상방위대 (대장 하채원), 비상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복), 경찰전투대 등 8개 전투단체 및 수사기관이 주둔했다.

많은 주민들이 검거된 것은 그로부터다. 앞잡이들에 의하여 검거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때려죽이고 한산도 앞바다 구이포에 신고가 머리에 돌을 달아 수장한 것이라 한다. 특히 지방민으로 된 헌병대앞잡이 해상방위대, G-2등 보조원들은 “헌병보”란 완장을 끼고 평소의 사감을 결부시켜 무수한 민간인을 빨갱이로 잡아들였다 한다. 당시의 학살관계자인 산양면 삼덕리 이양호(이양조, 본명 이판석), 김기행, 공학수배, 황덕윤, 구종근씨등은 유족들에 의하여 명단까지 공개되었다. 여자들은 머리에 떨치 종이부대 씌우고 등에는 이적자란 붉은 글을 써붙여 거리를 끌고다니다가 민족의 수로신인 이순신장군의 영현을 모셔 놓은 충렬사가 맞보이는 안산에 끌고가서 죽인 것이다.

1983년 8월 14일에는 현 제네바 주재대사로 있던 김용식씨의 숙모도 총살당했다. 당시 헌병대 유치장으로 사용되었던 현해무청 충무출장소옆 해산회사창고에 끌려간 남녀는 옷을 벗기고 난타하여 매일 밤 2,30명씩 발동선으로 실어다 버렸다는 것이다. 그뒤에 수장된 시체가 떠올라 항남동 동충일대의 해변에는 수없이 떠밀려 온 일도 있었다 한다.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직접역할을 한 앞잡이들은 당시 계엄주둔관 박태진 대위와 헌병파견대장 오덕선 중위에 아첨하기 위하여 착실한 가정부인들을 빨갱이 운운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몸을 바치게 했으며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간부로 있었던 김모씨는 억울하게 난행을 당한 부녀자들이 현재 충무시에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앞잡이들은 수사관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는 끌어다가 잔인한 고문을 하고 얼굴이 예쁜처녀나 여자들은 잘봐 준다고 능욕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천

관이란 요정을 경영하던 배정희(사망)씨는 박대위에게 미녀를 공납하고 뇌물을 바치고는 박대위를 손아귀에 넣고 잡혀간 사람들의 구명 "브로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모형제가 헌병대에 불들려간 가족들은 배씨에게 매달려 수없는 돈을 바쳤다는 눈물겨운 사실도 말했다. 우리민족의 슬픔이요 수치인 민간인무차별 학살만행이 다시는 없기를 유가족들은 바라고 있다. 위의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1960년 국회조사 위원회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1960년 6월 1일 통영시청에서 개최된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에서 탁복수 유족회 부회장 등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

○ 증인(金采鎬) : 저는 당시 읍장으로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친동생(金哲鎬, 의열단원, 해방후 국민회 통영부지장, 반민특위 경남 조사원)이 피해자입니다. 대략 그때 경비사령관이라는 박태승(朴泰振), 헌병대장이라고 하는 오덕선(吳德善), 그 다음에 공병대장이라는 신범식 그 세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씨아이 씨(CIC), 씨아이 디(CID), 에치 아이 디(HID) 이런 많은 기관...심정(深偵)기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대단히 일을 잘못했어요. 여기 당시의 경찰서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부정한 사람을 가질 것 같으면 일할만한 사람을 소개를 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소위 공산색채가 있는 사람을 많이 데려다 썼어요. 예를 들면 자기네들의 소위 심정이라 하는 사람 중에는 김덕천이라고 하는 빨갱이를 저희집에 재우고.....그 사람은 총살을 했습니다. 벌써 그 심정보조기관의 소위 문관(文官)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당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비사령관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적대행위를 하고 면회를 할려고 해도 듣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볼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비사령관이라고 하는 그가 돈을 벌겠다는 그런 A마음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연히 통영지방에 재산량이나 있는 사람을 막 잡아드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나중에 드를 것 같으면 돈을 얼마나 주기로 하고 나왔다는 사람이 내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라는 사람은 해방진후부터 공산당하고 적대시하고 싸워온 사람입니다. 헌병도 불구하고 잡아갈때에는 제 추측은 빨갱이 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 있으면 자기의 앞길이 나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하에 데려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들라 그러면 밤에 와서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잘 기억도 못하게 했어요.

사람을 잡아 죽이기를, 밥해 주었다고 죽이고 또 길 가르쳐 주었다고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죽이는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걸 보면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단히 몰지각이라고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어더한 금욕에 야심이 먼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걸 느끼고 둘째에는 사람을 죽이면 조사가 있어야 할데인데 뒤에 물어본즉 조서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죄로 죽는

다는 이런 조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저는 동생이 잡혀가서 싸죽인줄 알았는데 진해로 보냈다고 그래요. 얼마동안 그 말을 믿었는데 진해로 가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는 참으로 죽인줄 인정하기는 얼마 후입니다.

또 당시에 빨갱이 한 사람은 여기에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젊은 사람들 혐의로 인정하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 개개인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금전상 관계라든지... 빨갱이 근처에 갔다는 그 사람 밥해주었다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련(保聯)까지 합하면 통영시내에 800명 있습니다. 유가족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유키여간 사람도 있고 미처 모른 사람도 있어서... 그때에 죽은 사람은 통영시내에만 충무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영입니다. 합해서 보련까지 합해서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 위원장(최천) 철호(김채호씨의 동생)가 잡혀갈때에는 누가 잡아갔는가를 말하세요.

○ 증인(김채호) 그때 잡혀갈때에는...

○ 위원장(최천) 박태진(朴泰辰·박태진·위의 박태'승'은 잘못 기록한 것임) 오덕선(吳德善)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그 뒤에 처리경향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 증인(김채호) 8월 16일날 후퇴를 했습니다. 8월 16일까지 후퇴하라는 명령이 헌병대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 위원장(최천) 소위 책임자들이 그 뒤에 그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부처졌다든지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 증인(김채호)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 위원장(최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탁선생 얘기해 보시오.

○ 증인(탁복수) 저는 당시에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주인되는 안성강(안신강을 발음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헌병대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날 저녁에 헌병이 둘이 와서 가자고 해서 어린애를 업고 잡혀들어 가서 직접 사령관 박태진 오덕선한테 헌병대 사령관실에서 직접 취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취조를 받고 있는데 군? 묻는 것이 '이입네'를 아는가 또 누구를 아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나왔으니 빨갱이가 아니냐?하고 때리고 그때에 주인이 충무시 관광협회 회장입니다. 그래 충신(忠臣)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그래서 그때 큰 대자로 쓰러졌는데 헌병이 바게스에 물을 갖다가 깨 엮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날 새벽에 시러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채원(河采源)이가 해상방위대 대장입니다. 우리 이웃이고 300미터도 안떨어졌습니다. 안성강이가 인민군이

들어와서 해상방위대 각하집이라고 해서 살림을 탈취해가지고 인민군역 어떻게 했다. 그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해사(海事)국장 김기영씨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가지 나중에 원한을 풀려고 할테니 탁복수 그년을 죽여야 하겠다. 그것을 유권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헌병대안에 제가 25일동안 사는 그 동안에 어린애 데리고 있는 사람은 사형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안도태 라는 이가 빨갱이라고 해서 17명 총렬사 가서 마지막으로 총살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술장사를 했는데 그집에 가서 하체원이기 착복수는 오늘 총살인데 어린애가 있어서 안죽인다고 했다 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통영은 판곳은 한 구데기에 몇백명씩 학살했으니까 집단학살이지만 우리 통영에서는 산발적인 것입니다.

제가 본 견해로서 제가 25일동안 사는 동안에 140~150명 사형된 것이라고 봅니다. 밤 1시경 되면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둘씩 짝을 저서 30명씩 36명씩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바다에 수장합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라는 것은 이백 몇십명에 불과하지만 제가 25일 산 동안에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보아 800명 훨씬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빨갱이라고 몰려서 죽기 때문에 3분지2 이상이 객지로 전부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조사가 곤란할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무슨 이유로 안성강이를 하체원이기 그렇게 했는가 알아요?

○증인(탁복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장한테 배 이름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어요.

○조일재위원 어느 서장에게 의뢰했어요?

○증인(탁복수) 이(李)서장에게...

○조일재위원 선장 이름은 무엇인가요? 선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장하기 위해서 신고 나간것도 분명히 압니까?

○증인(탁복수) 네 그 배는 모르겠는데... 제1 진해(鎭海)호 선장이 하창모(河昌模)입니다.

○조일재위원 나이는 몇살인가요?

○증인(탁복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알았습니다.

○박상길위원 선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죽일때에 이 배에다가 신고가서 죽이는 역할을 한 것은 알았는가요?

○증인(탁복수) 네 그 사람이 지금 거제읍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趙文川)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그때에 돌아가셨는데 저의 아버지는 노동자입니다. 제 나이 19세때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노동자로서 그 당시의 어부로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지를 보고 피난을 가시라고 했더니 우리는 나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 네나 가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피난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니 저의 아버지를 데려간 사람이 문창섭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에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이...

○위원장(최천) 문창섭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증인(조문갑) 그 당시에는 문관으로서 앞제비 노릇을하고 데리고 온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무슨 혐의로?

○증인(조문갑) 아무 죄없이 노동자입니다. 이래서 아무죄도 없이 덮어놓고 죄를 진거 같습니다. 문창섭이가 빨개이다 해가지고 그때에 날조를 했습니다. 이래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물에 죽었는가 땅에 파묻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위원장(최천) 문창섭은 통영에 있습니까?

○증인(조문갑) 네. 그러나 데모 후에는 진주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최천) 그런 것을 자세히 채집안했습니까? 유가족대표에게 말씀드릴 것은 일반피해자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대개 헌병대에서 했다는 것은 대동소이하니 무엇을 채집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증인(나순조·羅순조) 오늘 급작히 국회로부터 조사단이 오실줄은 몰랐고 하여간 오실줄도 알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종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족회를 조직해서 오늘 아침부터 몇사람이 죽고 피해가 얼마라는 것을 채집하는 도중에 있는데 아직 서류가 미처 되지 못했더니 여기에서 몇사람이 죽었다는 것 나이 주소 성명 이런 것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나순조)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것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으나 자신이 없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입은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가서는 재산상 피해입은 것을 정도로 뽑아가지고 내주시고 셋째로는 그때 경비사령관이 누구며 계급이 무엇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빼가지고 문서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맹이를 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군이 행동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중점은 여러분이 지극히 분통했다 내남편 내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경로가 지금 들리는 말에는 밀고를 해서 무슨 이유로 잡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때에는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 아까 저분의 말씀과 같이 문창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려죽였다면 그런 것을 조사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지금 그때 잡어드린 것은 문관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한 사람이 헌병대에 말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관들도 불러서 물어볼 것입니다. 또 물어보기 위한 재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 있으면 우리한테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문관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반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처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총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이성오·李性五) 보련관계 200명은 별도로 놔두고 순전히 헌병대나 G-2나 이런데에 끌려가서 행방을 모르는 사람중에 오늘까지 신고가 213명입니다.

3) 집단 총살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적덕 고개에서 260명과 명정동 안산, 수장지는 산양읍 영월리 앞바다, 동호해안 그리고 육지도 앞바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 당시 문관으로 활동한 이양조, 공학수배, 허장완, 하대원 4명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을 정리하였다.

○증인(이양조) : 저는 6.25사변이 돌발하자 6월 24일 날 대한청년단 동단 감찰부장으로 내고향을 지키자 이런 취지하에서 대한청년단 단장이하 동 단부 간부들이 입초까지 서고 하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8월 26일 27일경에 문관증을 발부해 가지고 문관으로 있으라고 그래서 문관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문관은 외근을 했고 제 혼자 내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관들이 누구를 잡어오라는 것을 못잡어 오면 뺏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관들도 잡으러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170여 명이 영창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의 유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탁여사께서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윤(金在潤)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사정을 두고 하면 문관을 세워놓고 궁둥이를 때립니다. 그때는 4,5일만에 한번 20명이고 10명이고 끌고 나가면 돌 한덩어리씩 지고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전문적으로 총살을 시킨 사람이 최문관하고 孫하사라는 사람하고 金하사라는 사람 셋이 했습니다. 정확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억울하다고 봅니다.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산파로 문관이 무슨 마음대로 합니까? 권총을 가지고 쏘고 밀어 넣니다. 바다에..... 내가 한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17명을 메루치 부대를 써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늘 사복을 입고 땡겼습니다. 군복을 입고 땡긴 일이 없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마흔살 지금은 원살입니다. 그때는 내무를 보니까 구덩이를 파라 그래요. 구덩이를 파지않고 여기에는 총무공 모신데니 안된다고 그랬더니 다른데 가서 구덩이를 또 패겼습니다. 그래 17명을 데리고 오는데 한 구덩이에 넣고 총

살을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병들과 CIC, G-2, HID가 했습니다.

○위원장(최천) : 그러면 헌병대에서 문관을 시켜서 잡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나요.

18. 산청군 시천·삼장지역

1. 학살 실태와 상황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패잔병이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침투하
므로서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땅에 전운이 감돌았다. 1949년 7월 18일 새벽 반란
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 3년대
소속 소대병력이 작전수행차 출동하던 중 시천면 신천리 일명 설통바위 모퉁이
에 매복중이던 반란군에 의해 37명 전원이 몰상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
다.

이 사건의 원인이 주민중에 통비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군은 이
날 오후 인근마을 주민들을 신천초등학교에 모이게 한 후 노약자와 부녀자는 학
교 주변의 죽림(대나무 숲)을 제거하게 하고 청·장년 27명을 집단학살하고 신천
마을과 보안마을 가옥을 불지르고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 14명을 사살하였다.

아마도 이 사건이 우리 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국내 최초의 양민학살 사건이
리라. 이후 7월 22일에는 원리소재 덕산초등학교(현 덕산중고등학교)에 주민들을
모아 100여명의 주민들을 학교 뒷동산으로 끌고가 집단학살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1950년 1월에 이르기까지 근 6개월여간에 걸쳐 거리에서 들녁에서 닥치는
대로 사살하고 가옥 수백채를 불태우는 등 엄청난 만행을 자행하였다.

아무리 전시하에서라고는 하지만 우매하고 순박하기만 한 농민들을 부역자
란 이름으로 몰아 옥·석의 구분없이 무차별 학살한 행위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
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희생된 양민의 수는 수백명에 이르나 그후 6·
25전쟁이 일어나 오랜 전란의 와중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저주의 땅, 원한이 사
무친 고향에 돌아오기 싫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끈긴 사람, 전쟁의 틈
새에서 세대마저 끊어진 유가족들을 제외하고 유족이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200여명에 이른다.

금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찌 이처럼 무자비 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것도
적군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사건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 구천을 맴도는 억울한 영령들의 혼
령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만행이 저질러진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상은 밝혀
지지 않고 왜곡된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진채 50년이란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
가족들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오늘도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 피해자

유족회 명단 수록된 삼장, 시천, 단성 학살자 일자(장소)별 내역

| 학살 일자 | 학 살 장 소 | 학살자수 | | | 비 고 |
|------------|------------|------|-----|----|-------------|
| | | 계 | 남 | 여 | |
| 49. 6. 19 | 당산마을앞(단성) | 2 | 2 | | |
| 49. 7. 18 | 신천초등학교 | 27 | 27 | | |
| 49. 7. 18 | 곡점강변(시천농당) | 2 | 2 | | |
| 49. 7. 18 | 신천마을(시천신천) | 10 | 7 | 3 | 여1명 소사(진또분) |
| 49. 7. 20 | 원리뒷산(시천원리) | 2 | 2 | | |
| 49. 7. 22 | " | 78 | 78 | | |
| 49. 7. 23 | 보안뒷산(삼장보안) | 2 | 2 | | |
| 49. 7. 24 | 까막골(삼장평촌) | 1 | 1 | | |
| 49. 7. 25 | 원리뒷산(시천원리) | 22 | 19 | 3 | |
| 49. 7. 28 | " | 2 | 2 | | |
| 49. 7. 30 | " | 2 | 2 | | |
| 49. 7. 31 | " | 2 | 2 | | |
| 49. 8. 3 | " | 1 | 1 | | |
| 49. 8. 3 | 백운도로변(단성) | 1 | 1 | | |
| 49. 8. 9 | 원리뒷산(시천원리) | 2 | 2 | | |
| 49. 8. 20 | " | 7 | 7 | | |
| 49. 9. 24 | 장소미상 | 10 | 10 | | |
| 49. 11. 20 | 내대마을(시천) | 11 | 7 | 4 | |
| 49. 11. 21 | 원리뒷산(시천) | 9 | 9 | | |
| 49. 12. 20 | 양당못안(시천사리) | 1 | 1 | | |
| 50. 1. 2 | 까막골(삼장평촌) | 9 | 9 | | |
| 50. 1. 21 | 중산계곡(시천중산) | 1 | 1 | | |
| 50. 2. 13 | 창촌리 논(단성) | 1 | 1 | | |
| 계 | | 205 | 195 | 10 | |

4. 사례 및 증언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청원관련 증언 등 요약

□ 유족회 참석증언 마무리

1. 증언 및 현장 조사일시 : 2000. 5. 19. 15:30
2. 장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라 아파트 115동 606동
3. 참석인원 : 유족회장, 서봉석의원, 사무과 직원 1명
4. 증언자 : 조재미 (당시 덕산 주둔부대 3연대 2대대장)

○서봉석의원 : 산청군의회 의원이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었고 본인은 특별조사반 간사인데 피해자의 조사는 거의 마쳤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증언을 청취하여 공정한 조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었으면 한다.

○조재미 : 조금전에 다녀간 MBC기자들이 당시에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하는데 현지에 있을 때 나와 노군수(노재윤 : 1949. 6. 21-1950. 5. 6) 조명환 청년대장등 관계기관장과 유대가 얼마나 좋았는데 주민을 죽였겠느냐, 지천풍 중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지천풍이가 주민을 죽였으면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내게 보고했겠느냐, 보고하지 않으면 나는 모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였으면 연대 정보작전 주임 김시곤 대위가 죽었지 나는 주민들을 죽일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다만, 작전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김시곤이가 죽이려는 사람도 조명환 청년대장이 살려달라고 해서 나는 살려준 사람이다.

○정맹근 유족회장 : 산청에서 체재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

○조재미 : 하도 오래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다.

○정맹근 유족회장 : 지천풍중위는 직책이 무엇이었나?

○조재미 : 중대장이다. 김시곤이는 연대작전주임이고, 정해운이는 대대정보장교로 나의 부하였다. 김시곤이는 초기에는 극렬 좌익분자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군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안다. 후에 보안서장까지 지냈다.

○서봉석의원 : 혹시 지중위가 양민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공비를 죽였다는 전과보고를 할 수 있지 않는지?

○조재미 : 그런 일은 없다. 사람죽인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보고했겠나? (그러면서 국방부 전사자료 복사본 1권을 내어놓고 계엄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공비와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광주에까지 데리고 가도 죽일 것이니 현장에서 죽였는지 알 수 없다.

또 주민을 죽였으면 산골짜기에서 2-3명씩 기술적으로 처치하지 왜 수십 명을 한 장소에서 집단총살 했겠느냐, 당시에 잔인한 부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입으로 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입으로 말하며나 큰일나지. 아무튼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다.

○서봉석의원 : 다음 희생자위령비 제막식때 초청하겠으니 한번 다녀갈 의향은 없으신지?

○조재미 : 아니 내가 왜 가나. 함부로 그런 말하지 마시오.

5. 유족회 활동

○ 89년 9월 6일

· 희생자 위령비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고 문 : 이두기, 이병문, 하태호, 최영열

추진위원장 : 최인호

부 위원장 : 이통주, 정판상

총 무 : 정재근

위 원 : 조계환, 이보환, 정경규, 허종백, 박은석, 이대치, 권영을, 오병

철, 이재천, 박병용, 정태호, 장경생, 정영근, 손영태, 배도석, 이범용, 김종호, 김기호, 조일경, 박도일, 정운중, 김종환, 조은환, 하재석, 김춘식, 정태갑, 하계복, 박원길, 조승환, 하주갑.

○ 89년 9월 18일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탄원서제출(7건) : 대통령, 경남지사, 문화공보부장관, 육군 참총장, 민주공화당 총재, 평화민주당, 노인환의원

○ 90년 5월 26일

· 희생자 유족회 결성

회 장 : 정재근

부회장 : 이환주, 김종환

총 무 : 이재천

감 사 : 김종호

각리동별 유사 : 내대리 박도일, 중산리 권영을 동당리 이범용, 신천리 손영태, 반천리 하계복, 내공리 하재석, 천평리 정영근, 원리 배도석, 사리·중태리 김기호.

○ 90년 11월 30일

· 위령비 문안 심의(한정용 찬)

· 위령비 건립 모금운동 전개

○ 91년 3월 10일

· 위령비 건립부지 계약 : 외공리 대지 350평 대금 6,000,000원

○ 92년 3월 2일

· 위령비 문안 수정 (진주 최인찬 찬)

- 93년 6월 4일
 - 대통령 비서실 학살사건 진상요망 민원회신(국방부에 이첩처리)
- 93년 9월 4일
 - 외공 위령비 건립부지 매각 매각대금 10,250,000원
 - 반천입구 폐도부지에 건립기로 결정
- 94년도 3월 4일
 - 충남석재와 비석가공 계약체결
 - 국방부장관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청원서 제출
- 94년도 4월 26일
 - 위령비 제막식
 - 초헌관 : 산청군의회 의장 김기조
 - 아헌관 : " 부의장 조계환
 - 중헌관 : 시천면장 노재덕
 - 집례 : 추진위원회 고문 최영열
- 94년 5월 17일
 - 검찰총장 민원에 대한 회신 (국방부로 이첩처리)
- 94년 7월 16일
 - 국방부장관 회신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포함시켜 동일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피해 보상등 해결이 바람직하며 적극 협조 용의
- 96년 6월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유족 등록 신청서 192부 경남도에 제출
- 96년 7월
 - 경남도로부터 유족등록 신청서 반려
 - <반려사유>
 - 시천·삼장지역 양민학살 사건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등 성격 규정이 되지 않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처리가 불가능함.
- 98년 4월 27일
 - 청와대, 국회의장, 감사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 98년 4월 30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 관계부처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행자부에 통보함.
- 98년 5월 2일

- 감사원장 회신
- 국방부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하였음
- 98년 5월 7일
 - 국회의장 회신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
- 98년 5월 11일
 -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회신
 - 거창사건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사건이 아님
- 98년 6월 9일
 - 국방부 진정회신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같이 국회차원에서 처리 되어야 할 사안임.
- 산청군의회 특위 (99. 10. 7 - 2000. 4. 7)
- 99년 8월 10일
 -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시천, 삼장,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서 제출
 - 청원자 정맹근외 19인
 - 소개의원 조종명의원
- 99년 10월 7일
 - 산청군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특위 위원장 : 조종명의원
 - 간사 : 서봉석의원
 - 위원 : 공용식의원, 김희수의원
 - 조사기간 : 99. 10. 8 ~ 2000년 4월 7일 6개월간
 - 1차회의 99년. 10월 7일 의회 특위실
 - 2차회의 10월 11일 유족간담회 특위실
 - 3차회의 2000년 3월3일 시천면사무소 처리조사활동(유족증언 청취)
 - 4차회의 3월7일 삼장면 "
 - 5차회의 3월14일 시천면사무소 "
 - 5월19일 가해자 증언청취
- 2000년 4월 25일
 - 서울 MBC 사건현장 취재 박노업 PD(25, 26, 27일 3일간)
 - 6월 방송예정

19. 지리산 외공마을



1. 사건의 개요와 성격

▶사건의 개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2월 하순(한국일보 1960년 4, 5월 기사) 혹은 3월 중순(부산일보 1960년 4월 기사),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로 군용트럭을 앞세운 버스 행렬이 들어왔다. 주민 증언

에 따르면 버스는 최소 11대에서 14대였다고 한다. 버스 번호판은 '신흥' '경북' 그리고 '서울시영버스'였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 행렬은 외공 마을을 지나 중산리 쪽 반천마을로 올라갔다. 빨치산들의 총격을 받고 다시 철수, 외공마을 뒤 속칭 소정골 앞에서 버스에 타고 온 양민들을 하차시켜 골짜기로 끌고 갔다. 이때 이미 낚새를 차린 양민들이 저항하면서 '아저씨 좋은 곳으로 살러간다더니 이리 가면 우리 죽는거지요'라면서 울부짖기도 했다. 이들 양민들이 골짜기로 끌려간 자리에는 이불, 옷가지, 숯단지, 잣난아기 배개등 가재도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당시 현지주민들이 회수했다고도 한다. 소정골로 끌려간 양민들은 곧바로 학살을 당했다.

유일한 현장 목격자의 머느리 증언에 의하면 구덩이 앞에 한사람씩 세워놓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이 부분 다른 지역 학살사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지역 사건을 보면 무더기로 모아놓고 기총소사나 수류탄 투척등을 자행하였는바, 가끔 생존자가 있었으나 외공의 경우 마치 처형하듯이 학살을 자행하여 생존자가 전무하다. 이는 학살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어쨌던 이날 희생된 희생자 수는 버스를 10대, 한 대당 정원을 40명으로 잡아도 최소 400명에서 최대 7, 8백명이 될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사건의 성격

가해자는 김종원 부대라는 보도와 증언이 있으나 공식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고, 사건 후, 세월이 흐른 뒤 밤중에 몰래 현장을 찾아와 통곡을 하다가 간 사람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으나 이 역시 최근 10년에는 무소식이라는 것.

다만 지난 5월 14일 당시 '仁商(인천상고)' '京農(경성농고, 서울시립대 전신)' '金中' 등의 글자가 새겨진 교복 단추 발견, 숯가락, 금니빨 등의 유류품, 이들을 추적 분석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살현장 공개의 경과보고

- | | | |
|-------|------------|---|
| 1998년 | 1월 | 진주문화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현장 조사 및 탐문 시작 (연출 김석창, 작가 윤영수) |
| | 6월 | 1차 발굴 시도. 현장에서 다수의 유골 발견 후 재매장 후 무명비를 세우다 |
| | 11월 | 진주 MBC '지리산의 눈물'을 통해 세상에 공개 |
| 1999년 | 6월 일 | 진주 MBC 등 위령제를 지냄 |
| | 6월 일 | 진주사랑청년회 주최로 진주시민 40여명 통일역사기행 |
| | 8월 1일 | 진주사랑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부산민주청년회 회원 80여명 영호남 민주청년 통일 역사기행(입구 안내판 설치) 입구 안내판 교체(진주사랑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
| | 10월 | 위령제 제안 |
| 2000년 | 4월 | 1차 실무 모임(전민규 이기동 김영이) |
| | 5월 2일 | 2차 실무 모임(전민규 김영이 양재성 김석창 윤영수) |
| | 5월 8일 | 지리산 외공 양민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통일기원 진 혼굿 행사진행 및 발굴 |
| | 5월 14일 | 추진위모임(김덕현 김석창 유순필 이기동 전민규 김영 이 서울 MBC: 대책논의와 발굴진행관련 토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사진과 기사 실림(윤성호): 仁商에 대한 제보요청 |
| | 5월 15일 9시 | 발굴 및 봉분완료 추진위모임(양재성 이호준 서봉석 이기동 전민규 김영 이: 대책위의 필요성과 24일 모임 준비 논의) |
| | 5월 15일 20시 | 제보전화('仁商'의 단추가 인천고등학교일 가능성) |
| | 5월 16일 11시 |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통화(가능성 확인) |
| | | 15시 인고 총동문회 홈페이지(inkoin.com)에서 확인 인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제보요청글 올림 |
| | 5월 17일 19시 | 인상(仁商) 금중(金中) 경농(京農) 등 발굴된 물품의 사 진을 인터넷에 올 |
| | 17일 14시 | 민주노동당 진주시지구당 회의에서 대책위 실무자를 |

파견하기로 결의함

18일 10시 경농(京農) 단추가 서울시립대 전신인 경성농업학교임을 확인.

18일 12시 추진위모임(서봉석 김석창 전민규 김영이 유순필: 경과 정리와 24일 추진위모임 준비, 19일 구례학술회의 참여문제 논의)

18일 18시 제보자 찾기 방송(MBC 화제집중)

19일 16시 제4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
(구례 한국통신연수원: 사진전시 및 참석자들에게 홍보)

19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참석
(전국적인 유족모임을 만들 것이 제안됨)

24일 15시 행사추진위 모임(대책위를 꾸림)

3. 발굴보고

발굴지휘: 김석창 전민규 이통주

발굴분석: 고경혁(경상대 의대 부학장)

발굴: 지관 최동규의 1명, 외공마을주민 5명, 큰들문화예술센터단원(김주열 이진관 박세환 송병갑) 포크레인 1대

발굴보고서(고경혁 선생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5m였음

1m 미만의 흙을 파자 유골이 나오기 시작함.

총 6개의 구덩이중 1개를 발굴함.

발굴 결과 150명으로 추정되는 분량의 유골이 수습됨.

유골들의 상태는 뒤죽박죽 엉켜있었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

유골중에는 어린아이의 유골도 있었음 유골에서 금이빨을 한 유골도 발굴됨

유골 외 단추(프라스틱, 옥, 쇠로 만들어진것) 지퍼 혁띠 형겅조각, 숟가락 (프라스틱3개, 낫수가락1개, 스텐2개, 휘어만든것2개), 총알 다수, 구두칼 등이 발굴됨. 글자가 적힌 단추가 발굴됨(仁商, 金中, 京農의 글귀가 적혀있음)

국화문양이 들어있는 직경 4cm크기의 잔이 나옴

(잔의 측면에는 O常小學校O라는 글귀가 적혀있음-심상소학교라는 교원양성 학교일 가능성이 있음)

발굴된 유골은 가로2m 세로2m 판 2개에 가지런히 눕혀 매장하고 봉분을 만듦.

4. 제보로 확인된 사실

▶ 仁商의 단추는 현재 인천고등학교인 인천상업학교가 1933년부터 1951년까지 사용했던 모표로 4 5 6학년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확인)

▶ 京農의 단추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농업학교의 것으로 경농단추는 1945년까지 사용하였다.(서울시립대 박물관 확인)